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현대중국어 개사의 상표지 '着' 부가 현상 연구

2020년 2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閆 靜 潔

현대중국어 개사의 상표지 '着' 부가 현상 연구

指導敎授 朴 正 九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년 10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閆 靜 潔

閆靜潔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년 1월

委 員 長 이 강 재 (印)

副委員長 이 옥 주 (印)

委 員 박 정 구 (印)

국문초록

현대중국어 개사범주 내에서 ‘把’, ‘从’과 같이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는 개사가 있는가 하면, ‘朝着’, ‘顺着’와 같이 ‘着’가 부가된 ‘X着’ 개사도 존재한다.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X着’ 개사속의 ‘着’가 상대적인 시간을 지시하는 상표지로서의 의미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사에 ‘着’를 부가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본고는 현대중국어 개사에 상표지 ‘着’ 부가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가운데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과, 더 나아가 실제 언어적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문체의 다름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용상황을 규명하였다.

의미적인 면에서, 개사가 후속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동작의 ‘방향’, ‘수단’, ‘근거’를 나타낼 경우 ‘着’와 공기할 수 있으나, 술어동작의 ‘기점’, ‘종점’, ‘장소’, ‘시간’, ‘대상’, ‘화제’, ‘범위’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着’와 공기할 수 없다. 이는 ‘着’를 부가하려면 상적인 면에서 맞물려야 하는데, 즉 ‘着’는 [-순간성]을 지니며, 비완정상으로서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상황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관점이므로 술어동작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내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개사에만 ‘着’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술어동작이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채택한 ‘방향’, ‘수단’, ‘근거’이다.

또한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着’를 부가할 수 있는 여부의 다른 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从’, ‘与’, ‘以’ 등 개사는 ‘着’가 정식으로 상표지로서 보편화하여 사용되기 전에 이미 문법화 정도가 높으므로,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통계 및 의미분석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着’ 부가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着’의 부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당 개사가 나타내는 의미에 의한 것이다.

다음 지금까지 모든 ‘X着’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간과해왔던 것이 ‘X’가 이음절의 경우이다. 이음절 개사에 ‘着’를 부가한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세 가지 구조유형 중에서 오직 복합사에서 개사로 된 경우에 가능하며, 그중 ‘经过’, ‘通过’는 의미적으로 ‘着’와 모순되기에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X着’ 개사가 실제 언어활동 가운데서, 문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같은 상황에 대해 서술할 경우, 서면어는 묘사성을 더욱 강조하고, 문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구어보다 보수적이므로 ‘X着’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구어는 경제성 원칙에 의해 보다 무표적인 ‘X’ 개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본 연구는 의미 분석과 코퍼스를 이용한 통계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Comrie(1976), Smith(1997), 陈前瑞(2003), 박정구 외(2019)의 상 연구와 Hagège (2010), 刘丹青(2003)의 개사에 대한 연구이론, 그리고 Hopper & Traugott(1993)의 문법화 이론에 근거하여 개사범주 내에서 상표지 ‘着’를 부가하는 현상과 기제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현대중국어 ‘X着’ 개사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중국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개사, 상표지 ‘着’, ‘X着’ 개사, 의미기능, 문법화, 개사의 구조, 문체
학 번 : 2017-29574

목 차

국문초록 ····· i

1. 서 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선행 연구 ····· 3
1.3 연구 방법 및 내용 ····· 8

2. '着'의 상적 의미와 개사의 '着' 부가 상황 ····· 10

2.1 '着'의 상적 의미 ····· 11
2.2 'V_1着NP+V_2P'의 의미적 특성 ····· 17
2.3 개사의 '着' 부가 상황 ····· 19
2.3.1 개사의 범위 ····· 19
2.3.2 '着' 부가 여부 ····· 25
2.3.3 'X着NP+VP'의 의미적 특성 ····· 26

3. 개사의 의미와 '着'의 부가 ····· 30

3.1 방향과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 30
3.2 수단, 근거와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 ····· 36
3.2.1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 ····· 36
3.2.2 근거를 나타내는 겨우 ····· 41
3.2.3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 ····· 45
3.3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 48

3.4 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경우 ····· 50
3.5 화제와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 51

4. 개사의 문법화와 '着'의 부가 ····· 53

4.1 'X着' 개사의 형성과 문법화 ····· 53
4.1.1 'X着' 개사의 형성시기 ····· 53
4.1.2 개사 범주 내부의 문법화 다양성 ····· 56
4.2 상표지 '着' 생성이전의 개사들 ····· 71
4.3 겸어구문에서 온 개사들 ····· 77

5. 개사의 구조와 문체에 따른 '着'의 부가 ····· 80

5.1 개사의 구조와 '着'의 부가 ····· 80
5.2 문체에 따른 '着'의 부가 ····· 84

6. 결 론 ····· 92

【참고문헌】 ····· 94

【中文摘要】 ····· 99

표 목 차

<표2-1> 대표적인 학자들이 인정하는 개사범위 ····· 21
<표2-2> 주요술어와 공기 및 단독 출현의 상황 ····· 24
<표2-3> '着' 부가 가능한 개사와 불가능한 개사들 ····· 26
<표2-4> 'V_1着NP+V_2P'와 'X着NP+VP'의 비교 ····· 29
<표4-1> 'X' 개사와 'X着' 개사의 형성시기 ····· 55
<표4-2> 'X' 개사와 'X着' 개사의 元明清시기 및 현대 사용빈도 ····· 58
<표4-3> 元明清시기와 현대에서 'X着'의 출현상황 ····· 64
<표4-4> 방향의미 'X着' 개사의 문법화 상황 ····· 65
<표4-5> 근거의미 'X着' 개사의 문법화 상황 ····· 66
<표4-6> '趁着', '乘着'의 문법화 상황 ····· 68
<표4-7> '跟着', '借着', '靠着', '用着'의 문법화 상황 ····· 69
<표4-8> '挨着', '顺着', '随着', '沿着'의 문법화 상황 ····· 70
<표4-9> 元明清시기 개사들의 사용상황 ····· 75
<표5-1> 이음절 개사의 구조유형과 해당 개사 ····· 81
<표5-2> 유형2. 개사에 '着' 부가하여 출현하는 상황 ····· 83
<표5-3> 서면어와 구어에서 'X'와 'X着' 출현상황 ····· 86
<표5-4> 서면어와 구어에서 'X'와 'X着' 개사의 예문 ····· 88
<표5-5> 서면어 및 구어에서 '为着', '因着'의 출현빈도 ····· 90
<표5-6> 문체에 따른 'X着' 사용의 기제 ····· 91

그 림 목 차

<그림2-1> 동사 뒤 '着'의 문법화 경로 ····· 12
<그림2-2> 陈前瑞(2003) '着'의 문법화 경로 ····· 13
<그림2-3> Smith(1997)의 완정상과 비완정상 의미도식 ····· 15
<그림2-4> '着'의 상적 의미도식 ····· 15
<그림3-1> '经', '经过', '通过'의 의미도식 ····· 40
<그림3-2> '在', '当'의 공간-시간적 의미도식 ····· 49
<그림3-3> '距', '离'의 공간-시간적 의미도식 ····· 49
<그림3-4> 기점과 종점의 의미도식 ····· 51
<그림4-1> '朝着', '冲着', '对着', '向着'의 통시적 의미변화 도식 ····· 66
<그림4-2> 동사에서 기원한 개사의 변천 도식 ····· 72
<그림4-3> 겸어구문의 의미도식 ····· 78
<그림4-3> 연동구문의 의미도식 ····· 78
<그림5-1> 상황, 화자, 언어적 형식과 의미 사이의 관계 ····· 84

1. 서 론

1.1 문제 제기

현대중국어 개사는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구와 결합하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 후행 술어동사와 연관된 대상・기점・방향・수단 등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명사, 동사와 달리 폐쇄류에 속하며, 단어로서의 실제적 의미보다도 주로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a. 朝个性化方向发展　　개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다
　　b. 朝着个性化方向发展
(2) a. 按预定的计划执行　　예정된 계획대로 실행하다
　　b. 按着预定的计划执行
(3) a.?顺他们的思路推下去.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추리해 나가다
　　b. 顺着他们的思路推下去.

(4) a. 对他说　　그를 향하여 말하다
　　b. 对着他说
　　c. 对他表示关心　　그에게 관심을 보이다
　　d.*对着他表示关心

(5) a. 从家里出来　　집에서 나오다
　　b.*从着家里出来
(6) a. 把衣服洗干净　　옷을 깨끗하게 빨다
　　b.*把着衣服洗干净

예문(1)-(3)에서 '着' 부가가 자유로운데, '朝', '按', '顺'처럼 단독형 개사가 사용되는 동시에, '朝着', '按着', '顺着'도 마찬가지로 개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예문(3)의 '顺'은 단독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 반면에 '顺着'는 오히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문(4)에서는 동일한 개사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着'의 부가가 달라진다. (4.a), (4.b)와 같이, '그를 향하여 말하다' 의미를 나타낼

때, '对'와 '对着'가 모두 가능하지만, (4.c), (4.d) '그에게 관심을 보이다'를 나타낼 때는 '对' 대신에 '对着'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문(5), (6)에서 '기점'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从', '把'의 경우 모두 '着'를 부가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朝, 对, 顺, 随' 등 단독으로 개사를 담당하는 동시에 '着'를 부가한 형식인 '朝着, 对着, 顺着, 随着' 등도 마찬가지로 개사를 담당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해당 논점의 발단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전형적인 개사의 구조적 특징과 다른 점이 있다는 데 있다.

- '了, 着, 过' 접미사를 붙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흔히 이러한 개사들을 'X着' 개사라고 부르며 해당 '着' 성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着'는 단어의 내적 구성요소(词内成分)로서 상적 의미가 없는 접사(词缀)에 가까우며, 'X'와 'X着' 개사는 기능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개사의 '着'는 상표지로부터 변천하여 온 것으로서, 하나의 기호는 그에 해당한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론적 관점에 입각하면 아직 상적 의미 기능이 남아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연구들을 살펴본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除', '为'와 같이 의미가 상당히 문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사 '除', '为'에 '了', '着'를 부가한 형식인 '除了', '为了', '为着'를 독립된 개사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朝着, 对着, 顺着'의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된 개사가 아니라 '朝, 对, 顺' 개사에 접미사 '着'를 부가한 것이며, '着'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사 범주 내에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현상을 재조명하고, 과연 '朝着, 对着, 顺着'와 같은 'X着' 형식의 개사들을 하나의 독립된 개사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둘째, '着'를 일종 의미가 없는 접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朝着, 对着, 随着, 顺着'와 같은 개사가 있는 반면에 '*从着, *把着, *自着'가 없는 현상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해석이 없다. 다른 한편, 만약 'X着'는 개사에 상표지 '着'가 부가되어 형성한

것이라면, 아직 동사적 자질이 많이 남아있는 '给'와 '到'에는 '着' 부가가 불가능하다는 현상(*给着, *到着)을 살펴보면서 개사에 '着'를 부가할 수 있는 내재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朝-朝着', '照-照着'처럼 'X'와 'X着' 형식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한편, '顺', '随'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顺着', '随着'는 오히려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X着'가 개사로 사용될 경우 구어보다 서면어에서 훨씬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체에 따른 'X着'의 다양한 사용현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2 선행 연구

개사의 '着' 부가 현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흔히 개사에 '着'가 부가된 형식을 'X着'로 표시하며, 해당 단독 형식을 'X'로 표시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X' 개사를 논의하면서 'X着' 개사의 형성시기를 제시하였다.

雷冬平(2006)은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근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음절 허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X着' 개사를 나열하여 각각 개사로 사용된 시기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논문에서는 元明清시기에 형성된 'X着' 개사로는 '按着, 本着, 比着, 朝着, 趁着, 冲着, 赶着, 跟着, 对着, 借着, 就着, 据着, 看着, 靠着, 冒着, 凭着, 顺着, 随着, 同着, 望着, 为着, 向着, 循着, 沿着, 依着, 用着, 仗着'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 陈迪(2013), 卜雅娜(2011), 周四贵(2010), 刘婷(2014)은 宋・元明・明清 시기별로 개사를 살펴보았다. 陈迪(2013)는 宋代를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宋代부터 'X着' 개사의 수량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동시에 기능 분담이 점차 명확해졌다. 이 시대의 뚜렷한 특징은 'X着'와 같은 이음절 개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元明清시기에 백화문(白话文)의 발전과 구어체 단어의 증가로 인해 그전 시대에 사용하던 일부 개사들은 소실되었으며 아울러 새로 형성된 개사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X着'와 같은 경우, 기존 단음절 개사 'X'에 '着'가 부가되어 이루어졌는데, 주요하게 '挨着, 比着, 朝着, 趁着, 冲着, 跟着, 据着, 靠着, 望着, 向着, 沿着, 依着, 因着, 照

着, 对着, 依着'가 있으며, 이 시기 단음절 개사 'X'와 이음절 개사 'X着'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X着' 개사의 형성시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대에 와서 언어교류와 언어활동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요하게 '自打'와 같은 이음절 개사가 출현하면서 본문의 연구대상인 'X着' 개사도 함께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X着' 개사가 형성되기까지의 문법화·어휘화 경로와 기제를 다룬 연구이다.

丁茂琴(2015)은 先秦, 两汉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随, 依, 冲, 本'의 문법화 과정을 다루었고, 또한 '随着, 依着, 冲着, 本着'의 형성과 독립적인 개사로 고착되는 과정 및 원인을 제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随着/依着/冲着/本着 NP+VP'와 같이 연동구문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출현하여 문법화조건이 구비되었다. 'X着' 개사의 'X'는 동사에서 기원하였고, 단독 형태인 'X'의 문법화 경로와 동일하며, 개사로 문법화 되는 여부는 해당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현대중국어 말뭉치에서 'X着' 형식의 단어가 개사를 담당하는 경우 외에도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X着' 내적으로 동사성이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 현재 'X着'는 개사로 사용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더 높으며, 문법화의 단일방향성 원칙에 의해 앞으로 'X着'는 개사로서 더욱 문법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雷冬平(2006)은 근대에 출현한 'X着' 개사들을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사로 형성된 기제를 밝혔다. 그는 'X着'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서, 이음절 개사(双音介词)라고 하였다. 'X着'의 원형(原型)은 동사에 상표지가 부가된 것인데, 허화하기 쉬운 연동구문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출현하므로 개사로 문법화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X着' 개사더라도 문법화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머물러있는데, 하나는 '상표지 기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着', 그리고 '접사와 비슷한 단어의 내적 구성요소'의 '着',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부류의 중간상태에 있는 '着'라고 하였다.

万莹(2006)은 '朝'와 '朝着', '沿'과 '沿着', '顺'과 '顺着', '趁'과 '趁着', '对'와 '对着', '为', '为着'와 '为了' 등 여섯 쌍의 개사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X'와 'X着/了' 개사를 비교하여 의미기능과 통사적 출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논문

에 따르면, ‘X’와 ‘X着’의 문법화 시기가 다르지만, 모두 연동구문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개사로 문법화했다고 한다. 또한 ‘X’와 ‘X着’ 개사가 의미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문장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후행 목적어(NP) 및 술어(VP)의 특성과 음절수면에서도 다르다고 하였다. 예컨대 ‘X’ 개사와 달리, ‘X着’ 개사의 목적어는 주술구조(主谓短语), 동목구조(动宾短语) 등 복잡한 성분이 올 수 있고, 보통 음절수가 더 길다. 이외에 储泽祥(2004), 孙颖颖(2013), 姚幸(2013) 등 ‘对着’, ‘本着’, ‘跟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개사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한 여러 편의 소논문들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문들은 ‘X着’ 개사가 모두 ‘X’ 개사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문법화되었는데, 즉 연동구문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서 ‘着’가 부가되어 함께 ‘X着’ 개사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다. 단 이때의 ‘X’ 성분이 순수한 동사인지 아니면 개사인지, ‘着’를 상대적 시간성을 표기할 수 있는 상표지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능이 없는 접사인지, ‘X着’를 완전한 하나의 개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X’ 개사에 임시로 ‘着’를 부가한 것인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한편, ‘X着’ 개사가 완전히 문법화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着’는 본래의 상적 의미가 사라진 단어의 내적 구성요소(词内成分)라고 보는 견해가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존 연구들은 개별적인 개사들을 선정하여 논의하므로, 동일한 형식인 ‘X着’ 개사의 전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일부 ‘X着’ 형식이 언제부터 개사로 되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X’와 ‘着’가 어떠한 기제로 결합되었는지는 여태까지 간과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X着’ 개사의 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우선 상표지 ‘着’에 대해서 기존연구가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어져있다. 통시적 측면에서 ‘着’의 변천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문법적 기능, 의미특성, 화용적 역할 등 면에서 심도 있게 제시된 바 있다.

戴耀晶(1997)과 陈前瑞(2003)는 서양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중국어 전반적인 상체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상의 정의를 재조명하면서 ‘着’뿐만 아니라 ‘了’, ‘过’, ‘동사중첩’, ‘起来’, ‘下去’ 등 여러 상적 유형을 다루었다. 단, 두 견해사이의 다른 점이라면, 戴耀晶(1997)에 따르면 ‘着’는 비완정상의 전형적인 표지이며 지속성을 갖는데 동적인(动态) 것과 정적인(静态) 것의 이중성을 띈다고 하였다.

그러나 陈前瑞(2003)는 '着'는 진행상을 나타내지만, '正', '在', '正在' 등 일반적인 진행상 표지보다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으로, 정확히 비완정상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卢福波(1996)는 '진행'과 '지속'은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正在'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반면, 동사 접미사 '着'는 동작 또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과정(持续进程)의 강약에 따라 동태적(动态) 지속(예컨대 '唱着', '研究着')과 정태적(静态) 지속(예컨대 '戴着', '亮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견해로, 박정구 외(2019)는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모두 하나의 '지속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153개 방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1%가 동일한 형식의 표지로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는 것을 통해 의미적으로 다르나 동일한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어의 'be+V-ing', 일본어의 '-teiru(ている)', 한국어의 '-고 있-'도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동작의 진행 또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중국어의 '着'도 마땅히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결과상'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상표지 '着' 및 중국어 상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胡亚・陈前瑞(2017), 邓守信(1986), 陈平(1988) 등이 있다.

다음은 현재 학계에서 '朝着, 顺着, 沿着'와 같은 개사들에서 '着'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黎锦熙(1957)와 黎锦熙・刘世儒(1957)는 일부 개사에 '着'가 붙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성(时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金昌吉(1996)는 일부 자주 사용하는 개사 뒤의 '着', 예컨대 '本着, 沿着' 개사의 '着'는 개사 자체 고유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고, 다른 일부 개사, 예컨대 '当(着), 按(着), 向(着), 乘(着)'의 '着'는 2음절을 이루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赵元任(1980)은 개사가 어느 정도 상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당 개사 자체가 갖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 접미사를 사용여부는 정도의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상 접미사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어근 개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陈昌来(2002)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望着, 对着, 用着, 随着'의

‘着’는 현저한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개사 뒤에 부가되는 ‘着’가 단어의 구성요소(构词要素)이지 동태조사(动态助词)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다르게, 尚平(2005)는 개사에 ‘着’를 부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着’는 완전히 동태적 의미를 상실한 단어의 구성요소(构词要素)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개사에 ‘着’를 부가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着’ 앞의 성분이 개사의 경우 ‘着’는 단지 단어의 구성성분(构词成分)으로 본래의 의미기능을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着’ 앞의 성분이 동사의 경우 ‘着’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가지며, 이때의 ‘着’는 상표지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견해가 동일한 ‘X’ 성분에 ‘着’를 부가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다르게 분류함으로써 품사 분류기준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의혹을 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같이 여러 품사 사이에 형태적 표지가 없는 언어에서 단어 자체만으로 동사와 개사 여부를 단번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着’의 의미기능이 변화한다는 견해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외에 石毓智(1995)는 ‘跟着, 沿着’에서의 ‘着’가 상표지라는 것이 확실하며, 상대적인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董秀芳(2003)은 ≪现代汉语词典≫의 하위항목에서 ‘着’가 의존적 형태소(黏着语素)로 구성된 단어들, 예컨대 ‘跟着, 借着, 凭着, 向着’에서 ‘着’는 모두 상표지 ‘着’에서 변화해 온 것이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상표지에서 진일보로 문법화하여 단어의 구성요소로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내용처럼 상표지 ‘着’에 대해 상세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있는 것과 달리, ‘X着’ 개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대부분이 소논문 형식으로 되어있고, 학위논문은 두 편정도만 존재한다. 해당 논문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특정한 몇 개의 개사를 한정하여 살펴보았기에 기타 유사한 ‘X着’ 개사를 해석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X着’ 개사 범주에서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우므로 해당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고는 현대중국어 개사에 상표지 '着'를 부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 상, 앞으로 개사에 '着'가 부가된 형식을 'X着'로, 이와 상대적인 단독으로 사용되는 개사를 'X'로 표시하겠다.[1)]

본고에서는 의미 분석과 코퍼스를 이용한 통계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Comrie(1976), Smith(1997), 陈前瑞(2003)와 박정구 외(2019)의 상 이론과 Hagège (2010), 刘丹青(2003)의 개사에 대한 연구이론, 그리고 Hopper & Traugott(1993)의 문법화 이론에 근거하여 개사범주 내에서 상표지 '着'를 부가하는 현상과 기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범-언어적으로 봤을 때,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한 단어의 품사가 변할 경우 상응한 형태적 변화가 없으므로, 해당 단어만으로 의미・기능면에서의 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어 개사의 특성에 입각하여, 해당 단어의 통사적 위치 및 앞뒤 성분을 고찰하며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예시와 개사의 문법화에 의한 '着'의 부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로 북경대학교 중국어학 연구센터 CCL코퍼스[2)]를 이용하였고, 'V着V'와 같이 '着'를 포함한 연동구문을 검색하거나 구어에서 'X着' 개사의 사용상황을 살펴볼 경우 북경어언대학교 BCC코퍼스[3)]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우선, 논의의 바탕이 되는 '着'의 상적 의미기능을 제시하고, 개사의 범

1)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朝着, 冲着, 沿着'와 같은 개사들을 'X着'로, '着'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朝, 冲, 沿' 개사들은 'X'로 표시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방법을 채택하였다.

2)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语料库는 '古代汉语'와 '现代汉语' 두 파트로 분류되어 있는데, '现代汉语' 말뭉치는 물론, '古代汉语' 파트에 '周朝'부터 '民国'까지의 풍부한 말뭉치 자료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각 개사의 문법화 현상을 연구하고 통계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3) 北语汉语BCC语料库는 주로 현대중국어 말뭉치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文学'・'报刊'・'科技'・'微博' 등 다양한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문체에 따른 'X着' 개사의 사용상황을 살펴볼 때 '微博' 장르의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위를 확정하고자 한다. 이미 대량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중국어 개사는 거의 동사에서 기원하였으며, 아직 개사로 문법화 하고 있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개사도 있기에, 문법화정도가 높을수록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하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기제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60개의 개사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60개 개사에 '着' 부가 가능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을 나누고, 개사와 통시적 및 공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동사가 각각 '着'를 부가하여 연동구조(V_1着NP+V_2P)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출현할 경우, 의미기능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X着' 개사의 의미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과 4장은 개사에 '着'를 부가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제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개사의 의미에 따라 좌우지되는 '着'의 부가 상황을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방향'과 '대상', '수단', '근거'와 '도구', '기점'과 '종점', '화제'와 '범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X' 형식 개사와 'X着' 형식 개사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면서, '着'가 상표지로서의 의미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개사의 문법화 정도에 따른 '着'의 부가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X着' 개사의 형성시기를 밝히고,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개사범주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법화의 다양성과 'X着' 개사의 통사적 및 의미적 변천을 다루고자 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개사가 이음절의 경우 '着'의 부가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문체에 따른 'X着' 개사의 사용경향을 살펴보아, 'X着' 개사가 실제 언어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을 논의하고자 한다.

6장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성과를 함축적으로 서술한다.

2. '着'의 상적 의미와 개사의 '着' 부가 상황

Hagège(2010), 刘丹青(2003), 马贝加(2002) 등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바, 현대중국어 개사는 '(NP) V_1 (NP)+(NP) V_2 (NP)'[4]와 같은 연동구조에서 문법화 되기 시작하였다. 'V_1' 동작과 'V_2' 동작이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재분석을 통해 'V_1'의 실제적 의미는 점차 약화되고 추상화 하면서 후속 'V_2'의 대상・방향・수단 등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개사로 전환되었다.[5]

한편, 개사는 통시적으로 동사에서부터 변천하여 온 것으로서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 공시적으로는 서로 다른 통사적 분포와 의미기능을 지닌다. 현대중국어에서 동사와 개사에 '着'를 부가한 형식인 'V着'와 'X着'도 마찬가지로 연동구조라는 특수한 통사적 환경에서 내재적으로 연관성과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기존연구와 여러 견해들을 바탕으로, 현대중국어 개사에 '着' 부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우선 '着'가 상표지로서의 상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연동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 위치가 'V着'(동사+着)인 경우와 'X着'(개사+着)인 경우 각각 어떠한 의미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여 'X着'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의 편의상, '(NP) $\underline{V_1}$ (NP)+(NP) $\underline{V_2}$ (NP)'를 간략화 하여 'V_1NP+V_2P'로 하고, 'V着' 및 'X着'가 'V_1' 위치에 오는 경우를 각각 'V_1着NP+V_2P'와 'X着NP+VP'로 표시하여 진행하겠다.[6] 아울러 연구할 개사의 범위를 정하고, 현대중국어 개사 범주 내부에서 '着'와 공기하는 여러 유형들을 초보적으로 분류

---

4) NP: 명사구, V: 동사, 괄호 안의 NP 사용은 수의적이다. Li, Charles & Thompson, Sandra A(1981) 참조.

5) 실제적으로, 고립어로서의 중국어에서 동사와 개사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 현재 상당히 많은 개사들이 동사로부터 개사로 문법화 하는 과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동사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형적인 개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문법화 과정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동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개사도 있다.

6) 연동구조 '(NP) $\underline{V_1}$ (NP)+(NP) $\underline{V_2}$ (NP)'를 여러 방식으로 간략화 할 수 있으나, 본장에서는 주로 'V_1' 위치의 성분과 후속 술어동사 'V_2' 사이의 의미・기능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앞 절의 'NP' 특성을 함께 살펴볼 것이므로, '(NP) $\underline{V_1}$ (NP)+(NP) $\underline{V_2}$ (NP)'구조를 '$\underline{V_1}$NP+$\underline{V_2}$P'로 하고, '着'를 부가한 경우는 '$\underline{V_1}$着NP+$\underline{V_2}$P', 'X着NP+VP'와 같이 표기하겠다.

하여 살펴보겠다.

2.1 ‘着’의 상적 의미

현대중국어 ‘着’(zhe)는 흔히 동사 뒤에 출현하여 일정한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7) 他在椅子上坐着. 그는 의자에 앉아있다.
(8) 他吃着饭呢. 그는 밥을 먹고 있다.

‘着’의 상적 의미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戴耀晶(1991), 劉性銀(2006) 등 학자들에 따르면, ‘着’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내고, 동태동사 또는 정태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동태동사와 결합한 경우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동태적 지속을 나타내고, 정태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정태적 지속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견해는 예문(7)은 ‘앉은 동작이 이루어진 뒤 앉은 상태의 지속’을, 예문(8)은 ‘먹고 있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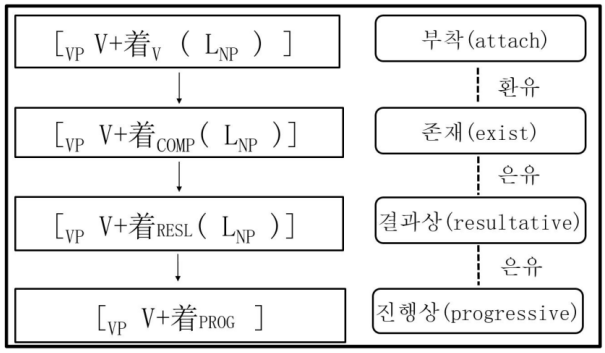
다른 한편,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모두 ‘지속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마땅히 공기하는 동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박정구 외(2019)는 ‘坐’와 ‘吃’를 각각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로 설정하고, 중국의 153개 방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1%가 동일한 형식의 표지로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9) a. 特坐着囊 (他坐着)
b. 特吃着饭囊 (他吃着饭) (山东青岛)
(10) a. 他坐住呐 (他坐着)
b. 他吃住饭呐 (他吃着饭) (广西北海)

예문(9), (10)처럼, 표준중국어를 포함한 51%의 방언에서 동일한 형식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기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앉은 상태의 지속'과 '먹는 동작의 진행' 등 다른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의 'be+V-ing', 일본어의 '-teiru(ている)', 한국어의 '-고 있-'도 결합하는 동사에 의해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상태의 지속이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着'를 모두 '지속상'으로 부르는 모순을 극복하고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결과상(Resultative Aspect)'과 동작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으로 구분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박정구 외(2019)는 방언 조사와 '着'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통해, '着'의 첫 번째 의미는 동작 후 상태의 지속, 즉 결과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결과보어로부터 문법화하였고, 다시 은유적 의미 확장을 통해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표지로 발전하였다는 규명하였다. 해당 문법화 경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2-1〉 동사 뒤 '着'의 문법화 경로

조사한 결과, 동작 후 발생한 존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결과상 '着'가 동사 '吃'류와 결합하여 진행의미까지 기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표지가 다른 상적 기능을 전달하고,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중국어 결과상과 진행상은 사실 내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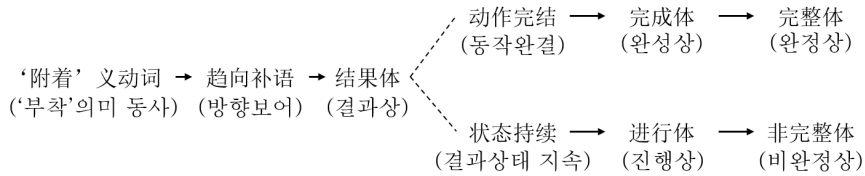
또한 陈前瑞(2003)는 Comrie(1976), Smith(1991), Olsen(1997), Binnick(1991), Dahl(2000b)의 이론들을 중국어에 적용하여, 중국어 상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예문(11)과 같이,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着'는 '결과상(结果体)'을 나타내는데, 동작의 완성(完成)과 종결(结束)뿐만 아니라, 동작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해당 결과는 현저한 상태 지속 의미를 갖고 있기에, 동작동사와 공기할 수 없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1) 桌上摆着碟碗. 그릇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12) *唱着歌就跳舞.

예문(11)에서 ‘摆’는 본래 ‘놓다, 진열하다’ 의미의 동작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뒤에 ‘着’가 출현함으로써, 동작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들이 책상위에 놓여있’는 결과를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결과는 한번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예문(12)에서 ‘就’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就’ 앞절 사건이 끝나고 뒷절 사건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앞절 ‘唱着歌’는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고 끝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2)문장 내부에서 모순이 되므로 비문이다.

그리고 陈前瑞(2003)에 따르면, 동태접사 ‘着’는 ‘진행상’ 표지이지만, ‘正, 正在, 在, 呢’ 등 상표지 보다 더 넓은 의미범주를 가지는데, 그것은 ‘진행상(进行体)’에서 진일보 발전하여 ‘비완정상(未完整体)’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컨대 ‘着’가 ‘标志着, 有着, 存在着’와 같은 상태 상황도 나타내며, 이로 보아 ‘着’의 의미는 일반 진행상보다 의미범주가 더욱 넓고, 문법화 정도가 더 높을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陈前瑞(2003)는 ‘着’에 대한 王力(1958), 赵金铭(1979), 梅祖麟(1988), 孙朝奋(1997) 등 기존 문법화 연구들을 검토하고, 통시적으로 세밀히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림2-2〉 陈前瑞(2003) ‘着’의 문법화 경로

‘着’는 ‘부착(附着)’의미의 동사에서 방향보어(趋向补语)를 지나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상’ 표지로 되었는데, 여기서 동작이 완결(完结)을 부각하는 의미와

결과상태의 지속(状态持续)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각자 문법화가 진행되었는데, 현대중국어에서 진행상과 비완정상 의미는 결과상에서 진일보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着'는 다른 진행상 표지와 다르게, 시제(时制)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진행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의 존재 또는 동작의 방식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비완정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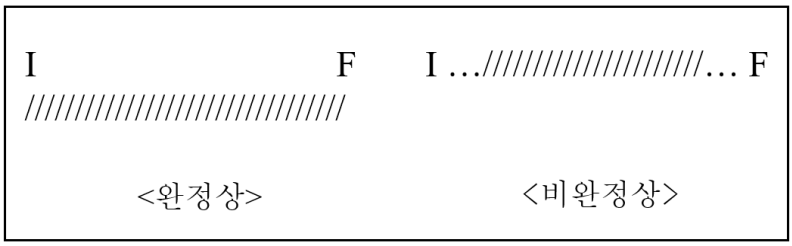
Comrie(1976:3)에 따르면, '상(Aspect)'은 '상황(Situation)의 내적 시간 구성을 바라보는 여러 방법'이다.[7] 이를 크게 '완정상(Perfective, 完整体)'과 '비완정상(Imperfective, 未完整体)'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완정상(Perfective)은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내부구조를 구별하지 않고 외부에서 단일한 전체로 바라보는 반면, 비완정상(Imperfective)은 상황을 안쪽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그 상황의 내부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다.

Smith(1997)는 더 나아가 상을 '상황상(situation type)'과 '관점상(viewpoint)'으로 나누었는데, 동사 자체가 나타내는 상황유형을 '상황상'이라 하고,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상을 '관점상'이라고 하였다. '관점상'은 경우에 따라 '완정상'을 채택할 수도 있고, '비완정상'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완정상'은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관점이며, 완정상의 시간적 폭(span)은 시작점(initial endpoint)과 끝점(final endpoint)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비완정상'은 상황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해당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비완정상은 상황의 내부를 망라한다고 하였다[8] 완정상과 비완정상의 시간도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7) "Aspects are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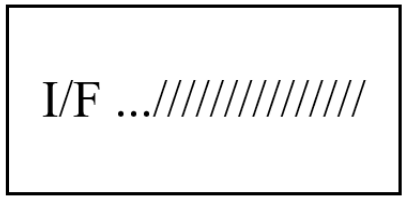
8) "Perfective viewpoint present a situation as a whole. The span of the perfective includes the initial and final endpoints of the situation...Imperfective viewpoints present part of a situation, with no information about its endpoints...The unmarked imperfective spans an interval that is internal to the situation. This conforms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the span of a viewpoint coincides with all or part of the temporal schema of the situation."



〈그림2-3〉 Smith(1997)의 완정상과 비완정상 의미도식

<그림2-3>에서 ‘I’는 상황의 시작점(initial endpoint)을, ‘F’는 끝점(final endpoint)을 가리키며, ‘///’는 상황을 바라본 범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완정상’은 시작점과 끝점을 망라하였고, ‘비완정상’은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상황의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Smith(1997)에 따르면, 현대중국어 ‘着’는 ‘비완정상’ 표지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을 표현하며,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다.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서 더 발전된 용법이 상황의 내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해당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비완정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着’가 결과상을 나타낼 경우, 사건의 끝점(final endpoint)을 제외하고 단지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 또한 상황의 일부분을 바라보는 비완정상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着’는 상황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반적인 비완정상 표지에 비해, 비교적 특이한 비완정상에 속하며, 해당 의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4〉 ‘着’의 상적 의미도식

<그림2-4>에서 ‘I’는 상황의 시작점(initial endpoint)을, ‘F’는 끝점(final endpoint)을 가리키는데, ‘着’는 한 상황의 끝점(final endpoint)을 제외하고 결과의 상태가 지

속되는 것을 표현하거나, 해당 상황의 내부를 바라보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方梅(2000)는 'V着'의 기능은 배경(背景, background)을 나타내는 것이며, 연동구문의 V_1의 위치에 있든지, 혹은 주요동사로서 술어위치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전경(前景, foreground)으로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Smith(1997)와 Liu(2015)는 부차절에 나타나는 동태 접사 '着'는 주요사건의 시간적・위치적 배경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3) 他们坐着看报
Sitting, they read the newspaper
그들은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

(14) 骑着马找马
Look for a horse while riding a horse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찾는다

예문(13)은 한편으로, '앉다(坐)'의 동작이 발생하여 '앉은 상태(坐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문을 보(看报)'는 것이며, '신문을 보는' 사건의 내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문을 보(看报)'는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그가 지속적으로 앉아있었다는 배경을 나타낼 수 있다. 예문(14)도 마찬가지로 '말을 타는' 동작이 끝나고 해당 결과 '말을 탄(骑着马)'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말을 찾는다(找马)'. 또한 '말을 찾는다(找马)' 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말을 타고 있었다(骑着马)'는 시간적・위치적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대중국어 '着'는 '비완정상' 표지로서, 하나의 상황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적 시간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상태의 지속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결과상과 진행상에 해당한다. 통시와 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着'의 결과상, 진행상 및 비완정상은 사실 내재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통사적으로 부차절에 나타날 경우 해당 사건의 배경, 즉 방식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내적 구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성(instantaneous) 동사와 공기할 수 없고,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되어야 함으로 지속성(durative)을 지닌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5) *花瓶破着
(16) *给着他一本书

2.2 ‘V_1着NP+V_2P’의 의미적 특성

본장에서는 ‘V_1NP+V_2P’와 같은 연동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 ‘V_1’ 뒤에 상표지 ‘着’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17) 他吃着饭看电视　　그는 밥을 먹으며 티비를 본다
(18) 他戴着耳机听音乐　　그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다

예문(17), (18)와 같이 동일한 연동구조의 ‘V_1’ 뒤에 ‘着’가 출현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17)에서 ‘V_1’인 ‘吃(먹다)’ 뒤에 ‘着’는 ‘진행상’으로서, 첫 번째 동작 ‘吃’와 두 번째 동작 ‘看’이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18)에서 ‘V_1’인 ‘戴(끼다)’ 뒤에 ‘着’는 첫 번째 동사 ‘戴’와 두 번째 동사 ‘听’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끼다’의 동작이 종결되고 나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결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동작 ‘听’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상’에 해당한다.

Li & Thompson(1981)에 따르면, 동작동사(Activity Verb)를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작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유생주어(animate subject)가 적극적으로 동작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동작동사는 다른 부류의 동사에 비해 문장의 술어를 담당하며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동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동태성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동작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부 동작동사는 종결되어 해당 결과의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동사의 동작성과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성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동사 ‘穿’을 예로 들면 (19)과 같다.

(19) a. 他在穿外套.　　그는 코트를 입고 있는 중이다
　　b. 他穿着红色的外套.　　그는 코트를 입고 있다

예시(19a)에서 ‘穿’은 동작동사로서 ‘코트를 입다’는 동작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진행을 의미하는 ‘在’와 함께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시(19b)와 같이 진행을 의미하는 ‘在’가 없이 단지 ‘他穿着外套’라면 ‘그가 코트를 입’은 뒤의 결과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17), (18)에서 ‘吃’, ‘看’, ‘听’은 매 순간마다 동작의 변화를 내포하거나 유생주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동작동사에 속하며, ‘戴’는 ‘끼다’의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나 (18)에서 동작이 이루어진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17), (18)의 ‘NP’인 ‘饭(밥)’, ‘耳机’는 모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可视的) 사물로서, 해당 사물에 가해지는 ‘V_1’의 동작은 직관적(直观的)인 것이다. BCC 코퍼스를 통해 ‘V着V’로 검색한 결과, ‘V_1’ 위치에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동작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동사는 다음과 같이 있다.

동사의미	V_1
동작동사	笑 看 听 说 哭 吵 走 嚷 抢 盯 闹 挣扎 喊 争 推 躲 试 嚷嚷 嘟囔 追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동사	穿 打 带 饿 靠 挨 陪 扶

이와 같이 ‘V_1着NP+V_2P’에서 ‘V_1’이 동작동사의 경우, ‘着’는 진행상을 나타내며, ‘V_1’과 ‘V_2’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V_1’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동사의 경우, ‘着’는 결과상으로서 ‘V_1’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면서 ‘V_2’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17), (18)는 모두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데, 이는 부차절에 ‘着’가 출현할 경우 술어동작 사건이 실행될 때의 배경, 즉 방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他怎么看电视?(그는 어떻게 티비를 보는가?)”의 물음에 “他吃着饭看电视(그는 밥을 먹으며 티비를 본다)”라고 답할 수 있다. 여기서 ‘看电视(티비를 본다)’의 동작사건이 ‘吃着饭(밥을 먹으면서)’라는 방식 또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朴正九(1997)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연동구조의 ‘V_1’ 뒤에 ‘着’가 부가될 경우, 현저한 묘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술어동사(V_2)를 진행할 때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외에 ‘V_1着NP+V_2P’ 구조에서 ‘V_1’ 뒤의 ‘着’를 생략하면 본래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7’) ?他吃饭看电视.
(18’) ?他戴耳机听音乐.

‘着’를 생략한 경우, (17’)‘吃饭(밥을 먹다)’과 ‘看电视(티비를 보다)’, (18’)‘戴耳机(이어폰을 끼다)’와 ‘听音乐(노래를 듣다)’ 등 앞뒤 두 독립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으며, 시간상에서 혼란을 가져옴으로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비문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V_1’의 성분에 따라 ‘着’ 및 ‘V_1着NP+V_2P’ 구조의 의미적 특성도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V_1’이 동작동사의 경우, ‘着’는 진행상을 나타냄으로써,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V_1’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着’는 결과상 표지로써, 첫 번째 동작이 종결된 후 해당 결과상태가 지속되면서 두 번째 동작을 진행하였음을 말한다. 아울러 모두 비완정상에 속한 ‘着’가 부차절에 출현할 경우, 두 번째 동사(술어동사)가 진행되는 배경을 나타내며, 해당 술어사건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V_1’ 뒤의 ‘着’를 생략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으며, 심지어 비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개사의 ‘着’ 부가 상황

2.3.1 개사의 범위

개사에 ‘着’ 부가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단독형 개사(X)의 범위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동사와 상대적으로, 개사는 허사에 속하고 폐쇄류이다. 그러나 개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원인은, 한편 통시적으로 본래 사용되었던 일부 개사는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개사가 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어 개사는 동사에서 기원한 품사로서 개사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층위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문법화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아직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들은 동사로서의 어휘의미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朝, 跟, 顺' 등이다. 일부는 문법화 정도가 아주 높아 어휘적 의미를 거의 잃어버리고 단지 하나의 표지로 되었는데, 예컨대 '把, 被, 从, 由, 自'가 있다.

지금까지 朱德熙(1982)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개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만 그쳤거나 소량의 개사를 예시로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사의 범위 및 수량을 제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간혹 개사로 인정하고 해당 범위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학자들마다 제시한 개사가 각각 다르다.

학자 및 저서	개사
허성도(2014)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44)	在 从 打 自 由 沿着 到 往 向 朝 从 自 自从 由 打 在 当 于 到 为 为了 替 因为 由于 用 拿 对 对于 关 关于 给 跟 比 把 将 管 跟 和 与 同 被 让 叫 由
Li &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A Funcitonal Reference Grammar* (55)	挨 按 把 被 奔 比 不及 不如 朝 趁 乘 冲 除了 从 打 代替 当{面} 到 对 对(于) 给 跟 管 关于 归 和 (hàn) 和(hé) 将 叫 解 就 (根)据 靠 离 论 逆 凭 起 使 受 顺 替 同 望 往 为 像 向 沿 依 (依)照 由 于 至于
Chao(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57)	按(着) 按照(着) 把 被 比 比较 朝(着) 趁 冲(着) 除(了/去) 从 打 到 对(着) 对于 赶 给 跟 根据 关于 管 归 和 将 叫 较比 解 据 靠(着) 离 连 连...带 临 论 拿 凭(着) 起 上 顺(着) 替 同 望 为(着/了) 向(着) 像 沿(着) 依照 因为 用 由 由于 于 在 照(着) 至于 自从
金昌吉(1996) ≪汉语介词和介词短语≫ (67)	按 按着 按照 把 被 本(着) 比 朝 趁(着) 乘(着) 冲(着) 从 除 除了 除去 除掉 除开 除却 打 打从 当 对 对于 逢 赶 给 跟 根据 关于 管 和 鉴于 将 叫 就 据 距 距离 离 连 论 拿 让 使 顺(着) 随(着) 替 通过 同 往 为 为了 为着 向 依 依照 依据 以 沿(着) 由 于 与 在 照 自 自从 自打

张斌(2000) ≪现代汉语虚词≫ (70)	按 按照 按着 把 被 本着 朝 朝着 趁着 乘着 冲 冲着 除 除掉 除开 除了 除去 从 打 打从 当 当着 对 对于 逢 赶 给 跟 根据 关于 管 和 鉴于 将 基于 经过 就 据 距 距离 连 论 拿 顺着 随 随着 通过 往 为 为了 为着 向 向着 沿 沿着 依照 依据 以 因 因为 由于 于 在 照 照着 至于 自 自从 自打
北京大学中文系编(1996) ≪现代汉语虚词例释≫ (93)	挨 捱 按 按照 按着 把 被 本 本着 奔 比 朝 趁 趁着 乘 冲 除 从 打 打从 当 到 对 对于 赶 给 跟 根据 关于 管 归 和 及至 即 将 叫 教 较 较之 借 尽 尽着 经 经过 就 据 距 亏 离 连 临 令 冒 拿 凭 起 让 任 使 使得 顺 顺着 随 随着 替 通过 同 往 望 为(wéi) 为(wèi) 为了 为着 向 沿 沿着 一任 依 依照 以 因 用 由 犹如 于 与 在 照 照着 至 自 自从 遵照
陈昌来(2002) ≪介词与介引功能≫ (152)	挨 挨着 捱 按 按照 按着 把 帮 被 本 本着 奔 奔着 比 比较 并 朝 朝着 趁 趁着 乘 乘着 冲 冲着 除 除掉 除开 除了 除去 除却 从 从打 打 打从 待 待到 当 当着 到 等 等到 对 对着 对于 赶 赶到 给 根据 跟 关于 管 归 合 和 基于 及 及至 即 鉴于 将 叫 教 较 较之 借 借着 经 经过 就 就着 据 距 距离 尽 尽着 靠 亏 离 连 连同 临 令 论 冒 冒着 拿 凭 凭着 起 让 任 任凭 任着 如 上 使 使得 顺 顺着 俟 随 随着 替 听 听凭 听任 通过 同 往 望 围绕 为(wéi) 为(wèi) 为了 为着 问 下 循 循着 向 向着 像 沿 沿着 一任 以 依 依仗 依仗着 依照 依着 因 因为 用 由 由于 于 与 犹如 仗着 在 照 照着 针对 针对着 至 自 自从 自打 遵照 逐 作为

〈표2-1〉 대표적인 학자들이 인정하는 개사범위

<표2-1>에서와 같이 개사의 범위와 수량에 대해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 허성도(2014)는 개사의 종류를 설명함에 있어서 44개의 개사를, Chao(1968)는 57개, Li & Thompson(1981) 55개, 金昌吉(1996) 67개, 北京大学中文系编(1996) 93개, 张斌(2000) 70개, 陈昌来(2002) 152개를 개사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현대중국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서면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도 개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解', '不及', '逢', '及至', '令', '遵照', '鉴于', '除开', '除去', '除却', '赶', '赶到', '较', '较之', '俟', '逐', '一任' 등이다. 상위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해당 단어들을 개사로 간주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나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학자들이 인정하는 개사범위를 토대로, 어느 특정한 단어가 개사인지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정하기보다, 후속 목적어(NP)[9]와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 술어동사와 연관된 대상・방식・방향・비교 등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국어 개사는 동사에서 변천해온 것이며, 실사(동사)가 허사(개사)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점차 실제적 의미를 상실하여 단독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보편적인 특징에 입각하여 분석을 진행하겠다.[10] 다음은 북경대학교 CCL코퍼스를 이용하여 현대중국어에서 출현한 적 있는 개사가 포함된 문장들을 각각 무작위로 100문장씩 추출하여,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하는 경우와 기타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빈도와 해당 비율을 통계하였다.

순차	단어	술어동사와 공기	단독 출현	비율[11]
1	挨	20	77	21%
2	按	49	42	54%
3	按照	100	0	100%
4	把	86	0	100%
5	被	85	0	100%
6	本	0	0	0%

9) 'NP'는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구를 가리킨다.

10) 문법화의 보편적인 경로에 따르면, 하나의 완전한 어휘적 의미를 갖고 그만의 유일한 문법적 지위를 지니는 실사가, 점진적으로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면서 본래의 의미기능에서 이탈하여 다른 한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아울러 문법화 정도가 심해질수록 통사적 위치나 형태상에서 자유로운 데로부터 점차 의존적이고 자유도가 낮아진다. 현대중국어 동사의 경우,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며, 흔히 술어를 담당하고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과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고대중국어에서 '잡다'의 동작을 나타내는 '把' 단독으로 '把一卷书. ≪六朝・三国志≫'의 문장을 이루어, 독립적인 '책 한권을 잡다'의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 이르러서는, '*把一本书'가 이미 비문이며 독립적인 문장을 이룰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把一本书' 뒤에 동사 '撕'가 와서 '把一本书撕了'를 이루어야 '한 권의 책을 찢다'의 완전한 문장과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7	奔	2	81	2%
8	比	62	17	78%
9	朝	17	18	49%
10	趁	80	5	94%
11	乘	48	46	51%
12	冲	18	42	30%
13	除	10	6	63%
14	除了	80	17	82%
15	从	64	4	94%
16	打	2	65	3%
17	打从	99	0	100%
18	当	12	13	48%
19	到	16	11	59%
20	对	33	21	61%
21	对于	97	0	100%
22	给	65	27	71%
23	跟	55	31	64%
24	根据	27	17	61%
25	关于	96	0	100%
26	管	1	68	1%
27	归	5	59	8%
28	和	71	0	100%
29	将	41	0	100%
30	讲	1	84	1%
31	叫	39	58	40%
32	借	24	36	40%
33	经	4	0	100%
34	经过	64	28	70%
35	就	0	1	0%
36	据	34	0	100%
37	距	6	31	16%
38	距离	0	15	0%
39	靠	34	53	39%
40	离	5	34	13%
41	连	49	16	75%
42	论	6	2	75%
43	拿	18	79	19%
44	让	84	13	87%
45	使	64	3	96%
46	顺	12	15	44%
47	随	7	13	35%

48	替	83	3	97%
49	通过	14	84	14%
50	同	16	1	94%
51	望	1	40	2%
52	往	75	3	96%
53	为	18	4	82%
54	为了	88	8	92%
55	向	87	3	97%
56	依	15	7	68%
57	依据	30	6	78%
58	依照	85	15	85%
59	以	5	0	100%
60	因	14	0	100%
61	沿	5	7	42%
62	用	36	51	41%
63	由	51	2	96%
64	于	9	0	100%
65	与	96	0	100%
66	在	49	12	80%
67	照	10	27	27%
68	自	4	0	100%
69	自从	96	0	100%
70	自打	65	0	100%

〈표2-2〉 주요술어와 공기 및 단독 출현의 상황

개사는 중국어에서 의미역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므로[12], 역사적으로 특정한 의미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이 대량으로 존재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출현하였거나 사라진 단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다른 품사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잠시 차용해서 개사를 담당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까지 포함하면 개사의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위 도표에서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비율이 10%이상인 단어들을 한정하여 연구하겠다. 왜냐하면,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단어들은 현재 주로 술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로서 동사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반면, 10%이상인 단어들은 개사성과 동사성을 어느 정도 함유한 단어들이며, 개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대량의 예

11) 비율: 주요술어와 공기 빈도/(주요술어와 공기 빈도+술어로 단독 출현 빈도)
12) 刘丹青(2003) 참고.

문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사의 여러 의미들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60개 개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挨 按 按照 把 被 比 朝 趁 乘 冲 除 除了 从 打从 当 到 对 对于 给 跟 根据 关于 和 将 叫 借 经 经过 据 距 靠 离 连 论 拿 让 使 顺 随 替 通过 同 往 为 为了 向 依据 依照 以 因 沿 用 由 于 与 在 照 自 自从 自打

2.3.2 ‘着’ 부가 여부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중국어 개사범주 가운데서 일부는 기존 단독형식(X)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着’가 부가되어(X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예시1’,2’), 기존 단독형식(X)은 소량으로만 존재하지만 오히려 ‘着’가 부가된 형식(X着)이 더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예시3’), ‘着’를 아예 부가할 수 없고 오직 단독형식(X)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예시5’,6’).

(1’)a. 朝个性化方向发展　　개별화의 방향으로 발전한다
　　b. 朝着个性化方向发展
(2’)a. 按预定的计划执行　　예정된 계획대로 실행하다
　　b. 按着预定的计划执行

(3’)a. ?顺他们的思路推下去.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추리해 나가다
　　b. 顺着他们的思路推下去.

(5’)a. 从家里出来　　집에서 나오다
　　b. *从着家里出来
(6’)a. 把衣服洗干净　　옷을 깨끗하게 빨다
　　b.*把着衣服洗干净

본고는 CCL, BCC코퍼스를 이용한 대량의 언어자료를 검토하여, 연구대상인 60개 개사들을 ‘着’와의 공기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유형	着의 부가	X/X着 상대적 비율	개사
1	+	X 〉 X着	挨 按 按照 朝 趁 乘 冲 对 跟 根据 借 靠 为 向 依 依据 依照 因 用 照
2		X 〈 X着	随 沿 顺
3	-	-	把 被 比 除 除了 从 打从 当 到 对于 给 关于 和 将 叫 经 经过 据 距 离 连 论 拿 让 使 替 通过 同 往 为了 以 由 于 与 在 自 自从 自打

〈표2-3〉 '着' 부가 가능한 개사와 불가능한 개사들

<표2-3>의 유형1, 유형2와 같이, 우선 기존 단독형식(X)에 '着'를 부가 가능한 개사로는 '挨, 按, 按照, 朝, 趁, 乘, 冲, 对, 跟, 根据, 借, 靠, 为, 向, 依据, 依照, 因, 用, 照, 随, 沿, 顺'이 있다. 다음, 전반적인 언어자료 가운데서 단독형식(X)이 '着'를 부가한 형식(X着)보다 훨씬 더 자주 출현하는 개사로는 '按, 按照, 朝, 趁, 乘, 冲, 对, 跟, 根据, 借, 靠, 为, 向, 依据, 依照, 因, 用, 照'가 있고, 반면 '着'를 부가한 형식(X着)의 출현비율이 단독형식(X)보다 높은 개사로는 '随, 沿, 顺'이 있다.

유형3은 '着'를 부가할 수 없는 개사로서, '把, 被, 比, 除, 除了, 从, 打从, 当, 到, 对于, 给, 关于, 和, 将, 叫, 经, 经过, 据, 距, 离, 连, 论, 拿, 让, 使, 替, 通过, 同, 往, 为了, 以, 由, 于, 与, 在, 自, 自从, 自打'가 있는데, 전체 개사범주 속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의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2.3.3 'X着NP+VP'의 의미적 특성

본장에서는 'X着' 형식의 개사가 연동구조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오는 경우를 고찰하여, 개사와 통시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동사에 '着'를 부가한 경우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 'X着' 개사의 의미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3.2장 <표2-3>에서 제시하였듯이, 현대중국어에 'X着' 형식의 개사로는 '挨着, 按着, 按照着, 朝着, 趁着, 乘着, 冲着, 对着, 跟着, 根据着, 借着, 靠着, 为着, 向着, 依据着, 依照着, 因着, 用着, 照着, 随着, 沿着, 顺着' 등이 있다.

한편, 이들은 동일한 형태의 단어이지만, 현대중국어에서 동사로서 술어에 출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술어동사와 함께 ‘X着NP+VP’를 이루어 개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0) 她转过身子向着门外.
그녀는 몸을 돌려 문밖을 대하였다.
(21) 一支蜡烛在照着屋里的一切.
하나의 촛불이 방안의 모든 사물을 비추고 있다.
(22) 一只胳膊斜靠着桌子，脸贴近灯前.
한쪽 팔을 책상에 비스듬히 기대고, 얼굴을 등불로 가까이 했다.

(20)-(22)는 형태상에서 ‘X着’와 동일하지만, 통사적으로 출현하는 위치와 후속 성분을 통해 여기서는 동사에 ‘着’를 부가한 ‘V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向着’는 ‘(얼굴 정면으로) 대하다, 바라보다’의 의미로 ‘그녀가 몸을 돌려 (얼굴 정면으로) 문밖을 대한’ 동작이 이루어진 후, 동작의 결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유일한 술어동사를 담당하고 있다. (21)‘照着’는 ‘(방안을) 비추다’ 의미로 현재 방안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靠着’는 ‘(책상에) 기대다’ 의미의 술어동사이며, 기대는 동작을 마치고 나서 ‘기대고 있는’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은 문장 속에서 주요술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후속 성분인 ‘门外(문밖)’, ‘屋里的一切(방안의 모든 사물)’, ‘桌子(책상)’는 일상적이고 가시적(可视的)인 사물만 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X着NP+VP’ 구조에서 ‘X着’는 개사를 담당하는 경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23) 向着精确和定量的方向深化.
정확하고 양적인 방향으로 심화해가다.
(24) 他们都照着她的吩咐做了.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지시대로 행하였다.
(25) 靠着演配角的机遇，现在已经混得小有名气了.
단역으로 출연한 기회로 지금은 좀 유명해졌다.

예문(23)-(25)는 ‘X着’의 위치가 (20)-(22)와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X着’의

후속 성분들도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向着', '照着', '靠着'는 더 이상 '대하다', '비추다', '기대다'의 동작의 진행이나, 동작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휘 자체의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 각각 술어 동작사건이 실행되는데 이용한 '방향', '근거', '수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着'는 보다 더 문법화된 비완정상으로서, 개사 'X'에 부가되어 함께 술어동작을 수식하여 배경을 보여준다. 이는 'X着NP+VP' 구조에서 'NP'와 'VP'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23)'向着' 뒤에 'NP'가 '精确和定量的方向(정확하고 양적인 방향)'으로 술어 동작사건(VP) '深化(심화해가다)'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24)'照着' 뒤의 '她的吩咐(그녀의 지시)'는 동작 '做(행하다)'를 실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 근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25)'演配角的机遇(단역으로 출연한 기회)'는 '混得小有名气(좀 유명해졌다)'의 술어 동작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이는 유사한 연동구조인 2.2장의 'V_1着NP+V_2P'와 의미적 면에서 구별된다.

(17') 他吃着饭看电视　　그는 밥을 먹으며 티비를 보다
(18') 他戴着耳机听音乐　　그는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다

(17')과 (18')은 'V_1'이 각각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경우의 예시이다. 이들은 모두 술어 동작사건인 '看电视', '听音乐'가 진행되는 동안 앞 절의 동작(吃饭), 결과상태(戴着耳机)가 줄곧 수반되었음을 의미하며, 'V_1着NP'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X着NP+VP'에서 'X着NP'는 독립된 사건을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X着NP'는 오직 부사어로서 'VP'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23)-(25)는 2.2장의 상황과 달리, '方向(방향)', '吩咐(지시, 부탁)', '机遇(기회)' 등 추상적인 'NP'가 올 수 있으며, 'VP'는 구체적인 동작 외에 '深化(심화해가다)'의 추상적인 척도에서 정도 또는 단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있다.

요컨대, 'X着NP+VP'와 같이 개사 'X' 뒤에 '着'를 부가하여 다른 한 술어동사와 함께 공기하는 경우, 후속 목적어(NP)와 동사(VP)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向着', '照着', '靠着'는 술어 동작사건이 실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용한 '방향', '근거', '수단' 등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X着'가 술어에 출현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다른 한 범주에 속한다. 朴正九(1997)에 따르면, 개사구의 주요기능은 주요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Li & Thompson(1981)은 현대중국어 개사가 원래 동

사였다는 특징은 현재 개사의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해주며, 그중에 동사적인 성질과 전치사적인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X着’ 개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X着’는 어느 정도 동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사이며, 비록 동사에서 기원하였으나 현대중국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앞서 2.2장에서 다룬 연동구조의 첫 번째 동사 위치에 ‘V_1着’의 경우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사한 점	‘V_1着NP+V_2P’와 ‘X着NP+VP’의 앞 절에 모두 비완정상 표지 ‘着’가 있으므로, 앞 절은 모두 후속 술어 동작사건(V_2P, VP)이 진행할 때의 배경과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다른 점	1) 의미적인 면에서 ‘V_1着NP+V_2P’의 경우, 앞 절(V_1着NP)는 구체적인 동작 또는 상태사건을 나타내며, 술어 동작사건과 함께 진행하였거나, 혹은 앞 절의 결과상태가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하는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X着NP+VP’의 경우 앞 절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낼 수 없으며, 앞 절은 단지 술어 동작사건(VP)을 수식하며 해당 ‘방향’·‘근거’·‘수단’ 의미만을 나타낸다. 2) 형태적인 면에서 ‘V_1着NP+V_2P’에서 ‘着’를 생략하면, ‘V_1’과 ‘V_2’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없고 완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반면, ‘X着NP+VP’에서는 ‘着’를 생략하면 시간성외에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17’’) 他吃着饭看电视 ?他吃饭看电视 (18’’) 他戴着耳机听音乐 ?他戴耳机听音乐 (24’’) 他们都照着她的吩咐做了 他们都照她的吩咐做了 이로 보아, ‘照着’에서 ‘照’는 ‘吃着, 含着’의 ‘吃, 含’과 별개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4〉 ‘V_1着NP+V_2P’와 ‘X着NP+VP’의 비교

3. 개사의 의미와 '着'의 부가

3.1 방향과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개사는 동사가 직접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이외에 기타 의미들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다. 따라서 개사는 목적어(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함께 개사구를 이루어 후속 술어동사와 연관된 대상・기점・방향・수단 등 의미를 나타낸다. 본장에서 개사가 술어동작의 '방향'과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방향'은 술어동작을 진행하는데 따른 방향을 가리키고, '대상'은 '참여자', '수혜자', '비교대상' 등을 통칭한 것이다.

현대중국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로는 '朝', '冲', '对', '向', '往'이 있는데, 이들은 뒤의 목적어와 함께 술어동작이 진행되는 순간 또는 진행하는 동안의 방향 의미를 나타낸다.

(26) 他朝(朝着)正南方向拜了几拜.
그는 정남방향을 향해 몇 번 절을 하였다.
(27) 笔录也不做了, 冲(冲着)刘招华喊: "...
노트하는 것도 그만두고, 유소화를 향해 소리 지르기를: "
(28) 女人回脸对(对着)窗户上的春儿说: "
여자는 얼굴을 돌려서 창문위에 있는 춘아를 향해 말하기를: "
(29) 阿宝立即翘起双耳向(向着)树林吠了几声.
보아는 즉시 두 귀를 치켜들고 숲을 향해 몇 번 짖었다.

(26)-(29)에서 '朝', '冲', '对', '向'은 모두 단독 형식 외에 '着'가 부가된 'X着', 즉 '朝着', '冲着', '对着', '向着'도 마찬가지로 술어동작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독 형식 '朝', '冲', '对', '向'과 'X着' 형식 개사 '朝着', '冲着', '对着', '向着'는 나타내는 의미면에서 겹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 'X'와 'X着'는 '방향' 의미를 나타냄에 있어서 시간상에서 세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6)'朝'의 경우, '그는 정남방향을 향해 몇 번 절을 하였다.'라는 상황을 단순히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朝着'의 경우는 '그는 몇 번 절을 하는 동안 내내

오직 정남방향을 향하였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朝着'의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설명하기 위해 (26)문장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면 '朝'에 '着'를 부가할 수 없다.

(30) 他朝(*朝着)正南方向拜了一下, 然后又朝(*朝着)正东方向拜了一下.
그는 정남방향을 향해 한번 절을 하고나서 또 정동방향을 향해 한번 절을 하였다.

(30)에서 볼 수 있듯이, '拜(절을 하다)'의 술어동작을 실행하는 시간이 '一下(한번)'이라는 보어로 제한하여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朝着'를 사용할 수 없다. '冲', '对', '向'도 마찬가지다.

(31) 他说完就冲(*冲着)钱国华做了一个恶狠狠的鬼脸.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국화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32) 突然对(*对着)他咳嗽了一声, 给他使了一个眼色.
갑자기 그를 향해 기침을 하고, 그에게 눈치를 주었다.
(33) A: "今天天气怎么样?" B: 向(*向着)窗外看了一眼, 答道: "
A: "오늘 날씨 어때?" B: 창밖을 향해 한번 보고서 대답하기를: "

(31)에서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바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음'을 말하고, (32)은 '그를 향해 기침을 하고' 바로 '눈치를 주었음'을 말하며, (33)은 B에게 날씨를 물었더니 B가 창문이 있는 쪽을 한번 보고서 얼굴을 다시 A를 향해 대답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就(바로)', '一声(한번)', '一眼(한번)' 그리고 앞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钱国华', '他', '窗外'를 향하면서 취한 동작의 시간이 아주 짧으며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두 '冲着', '对着', '向着'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34) 目前, "正大"正朝着(*朝)多元化、国际化的方向持续前进着.
현재, '정대'는 한창 다원화, 국제화의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35) 发生地震时, 对着(*对)这个方向的龙机就震动起来.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방향을 향한 용기도 바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36) 例如冲着(*冲)镜子微笑, 放松十次, 抬眉十次, 然后吸气鼓腮十次.
예컨대 거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힘을 빼는 것 10번, 눈썹을 치켜드는 동작 10번,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볼을 볼록하게 10번 하는 것이다.

(37) 羽中正在向着(*向)成为学者的路上努力地走着.
우중은 현재 학자로 되는 있는 길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

(34)-(37)의 술어 '持续前进着', '微笑, 放松十次, 抬眉十次, 然后吸气鼓腮十次', '走着' 등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술어동작은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추상적인 척도에서 정도나 단계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모두 줄곧 해당 방향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X着' 개사 대신에 'X'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X着' 속의 '着'의 상적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현대중국어에서 개사 '往'은 예외적으로 '着'를 부가할 수 없으며, CCL코퍼스를 이용한 고대・현대 언어자료에서 '往着'의 예문을 찾아볼 수 없다. ≪说文解字≫에 따르면, "往, 之也."로서 '(어느 곳으로) 가다' 의미를 나타내며,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着'와 양립할 수 없다.

(38) 刘备曰: 备为先锋愿往(*往着)." ≪元・三国志评话≫
유비가 말하기를: "제가 앞장서서 가길 원합니다."

(39) 明日就往(*往着)店里寻你去. ≪元・老乞大新释≫
내일 곧 가게에 가서 너를 찾으러 갈게.

(40) 荐你往(*往着)三山关邓九公处去. ≪明・封神演义≫
당신이 삼산관 등구공이 있는 곳으로 가길 추천하네.

(41) 将银两往(*往着)桌上一摔, 说: "... ≪清・施公案≫
은량을 책상위에 던지고 나서, 말하기를: "...

(38-39)에서 '往'이 '(어느 곳으로) 가다' 의미의 동사의 경우 문말 또는 문중에서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없다. (40-41)는 '三山关邓九公处'와 술어동작 '去', '桌上'과 술어동작 '摔' 사의의 의미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往'은 '처소'를 나타내는 개

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着’를 부가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42) 朝/冲/对/向/她笑 (朝着/冲着/对着/向着)
그녀를 향해 웃다
(43) *往她笑 (*往着)

(44) 往/*朝/*冲/*对/*向黑板上写字.
칠판에 글을 쓰다.
(45) 江秀霞正往/*朝/*冲/*对/*向脸上打着油彩.
강수하는 한창 얼굴에 도란을 바르고 있었다.
(46) 小贩抓住银元往/*朝/*冲/*对/*向身边的匣子里装.
장사꾼은 은전을 잡아서 옆의 상자 속에 담았다.

(42)-(43)과 같이 ‘笑’는 ‘웃다’ 의미의 자동사로서, ‘她’는 단순히 ‘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朝她笑’, ‘冲她笑’, ‘对她笑’, ‘向她笑’는 가능하지만 ‘*往她笑’는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2)의 경우 모두 ‘朝着, 冲着, 对着, 向着’로 대체할 수 있지만, (43)‘往’은 ‘往着’로 바꿀 수 없다. 반면, (44-46)에서 ‘黑板上’과 ‘写字’, ‘脸上’과 ‘打油彩’, ‘身边的匣子里’와 ‘装’의 의미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往’은 술어동작의 최종적으로 종결될 ‘처소’를 나타내는 개사이다. 특히 ‘往’ 뒤의 명사구에 ‘上’, ‘里’와 같은 방위사가 있으므로 특정한 ‘처소’ 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朝’, ‘冲’, ‘对’, ‘向’은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往’을 단순히 ‘방향’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로 분류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往’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종결될 ‘처소’ 의미를 나타낸다. ‘방향’과 ‘처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방향’은 동작이 특정한 처소에 도착하기 전에 진행한 동작의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처소’는 동작이 종결되는 끝점을 나타낸다. ‘往’의 이러한 의미는 대부분 공기하는 술어동사가 모두 이동의 의미 동사인 현상에 대해 잘 해석이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47) 火车往北京开去.
기차는 북경으로 떠나간다.
(48) *火车朝/向北京开去.
(49) 火车朝/向(朝着/向着)北京方向开去.
기차는 북경이 있는 방향을 향해 떠나간다.

예문(47)은 '기차가 북경으로 떠나간다'의 뜻으로, 상식적으로 기차가 출발하는 곳이 종착지인 북경과 비가시적인 먼 거리에 있으며, 북경으로 가기 위해 기차는 여러 방향에 따라 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48)와 같이 '朝', '向'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49)처럼 '方向'이라는 명백하게 방향을 나타내는 문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 '朝', '冲', '对', '向'에 '着'를 부가하여 '朝着', '冲着', '对着', '向着' 등 'X着' 개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술어동사가 이동동사이든 비이동동사이든, 진행하는 동안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며 수반한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向', '对' 등 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0) 我向(*向着)他借钱.
나는 그에게 돈을 빌린다.
(51) 我对(*对着)今天的事非常生气.
나는 오늘 일에 대해 매우 화가 난다.

(50)과 (51)에서는 '방향' 의미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대상'과 '화가 나는 대상'을 나타내는데, 즉 이들은 모두 술어 동작사건인 '돈을 빌리다(借钱)', '화가 나다(生气)'와 연관된 참여자들이며, 이러한 경우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에도 '着'를 부가할 수 없다.

(52) 今天的风比(*比着)昨天更大.
오늘 바람은 어제보다 더 세다.

(53) 我和/跟/同(*和着/*跟着/*同着)他讲我过去的经历.
나는 그에게 나의 경험을 알려준다.
(54) 他和/跟/同(*和着/*跟着/*同着)我一样高.
그의 키는 나와 같다.
(55) 我拿(*拿着)你当亲人看待.
나를 너를 가족으로 대한다.
(56) 同学们替(*替着)他送行.
동학들은 그를 배웅하였다.
(57) 他给(*给着)我写了一封信.
그는 나에게 편지 한 통을 써주었다.

(52)-(57)에서 '比'는 바람의 세기를 비교당하는 '비교대상'을, '和', '跟', '同', '拿'는 각각 술어 동작사건 '나의 경험을 알려주다(讲我过去的经历)', '가족으로 대한다(当亲人看待)'에 연관된 '참여자'를 나타낸다. 그중 '和', '跟', '同'은 동시에 (52)와 같이 '비교대상'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替', '给'는 '배웅을 받는 대상', '편지를 받는 대상'으로서 모두 동작의 '수혜자'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着'를 부가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Aspect)은 상황(Situation)의 내적 시간구성을 바라보는 여러 방법이다. 또한 '着'는 비완정상 표지로서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상황의 내적 구조를 가까이 살펴보는 관점이다. 한 술어동작의 내적 구조와 연관된 의미가 바로 동작을 진행하는 동안 채택한 방식인데, 즉 '방향', '근거'와 '수단'이다. 이들은 술어동작과 함께 이루어지며, 동일한 시간대를 공유하는데, 특히 이동이거나 변화를 함유한 동작을 실행할 때 더욱 부각되므로 '着'를 부가하기 더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 '수혜자', '비교대상' 등은 술어 동작의 내부의 시간구성과 상관없이, 영구불변한 것이다. 특히 '비교대상'은 어떠한 성질이나 속성을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시간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向', '对'가 동작의 '방향'을 나타낼 경우 '着'를 부가하여 '向着', '对着'를 이룰 수 있으나, 동작의 '참여자'를 나타낼 경우에는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2 수단, 근거와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

3.2.1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

'수단(Manner)'의 의미는 술어동작을 실행할 때 채택한 방법, 방식, 경로 등을 가리는데, 영어로는 'by', 'with', 'through'에 해당한다. 현대중국어에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로는 주로 '挨, 趁, 乘, 借, 靠, 顺, 随, 沿'외에 '经, 经过, 通过'가 있다. 우선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에 '着'를 부가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58) 趁(趁着)别人不注意，给宋查理暗送秋波.
다른 사람이 소홀한 틈을 타서 송차리에게 남몰래 추파를 보낸다.
(59) 乘(乘着)城内空虚，夺取部长职位.
성안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부장의 직위를 빼앗았다.
(60) 借(借着)欺诈和压制聚敛财富.
사기와 압제로 부를 긁어모은다.
(61) 靠(靠着)勤劳的双手，创造了灿烂的文化.
근면한 두 손으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58)-(61)에서 개사 '趁', '乘', '借', '靠'는 모두 뒤의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 동작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용한 방법과 수단을 나타낸다. '趁'과 '乘'은 '(시간이나 기회)를 타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借'는 '(사물이나 시간)을 이용하여'의 의미, '靠'는 '(무엇)에 의지하여'의 의미 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한국어로 모두 '(무엇)으로'에 해당한 '수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모두 '趁着', '乘着', '借着', '靠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의미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58)'趁别人不注意, 给宋查理暗送秋波'는 '다른 사람이 소홀한 틈'이 시간상에서 한 순간인지 아님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趁着别人不注意'는 '다른 사람이 소홀한 틈이' 일정한 시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도 '성안이 비어있는 틈'이 한 순간이었는지, '며칠 동안 비어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60)과 (61)도 마찬가지로, '借着', '靠着'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와 압제', 그리고 '근면한 두 손'의 수단을 이

용하여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술어동작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해, '借', '靠'는 이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모호하다. 보다 명확한 예문을 보자.

(62) 趁着(?趁)黑夜悄悄驶离了长江口.
캄캄한 밤을 이용하여 살그머니 장강 항구를 떠나갔다.
(63) 乘着(?乘)夜色掩护, 来到马根丹城下.
야밤의 엄폐로 마근단성 아래까지 왔다.
(64) 他正借着(?借)灯光看书.
그는 한창 불빛으로 책을 보고 있다.
(65) 这些年, 靠着(?靠)亲戚不断的资助我的生活才慢慢好起来.
그동안 친척의 끊임없는 지원으로 나의 생활형편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62)'悄悄驶离(살그머니 떠나갔다)', (63)'来到(...까지 왔다)', (64)'正...看书(한창...책을 보고 있다)', (65)'不断的资助(끊임없는 지원)', '慢慢好起来(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될 때 한동안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내부 과정 속에서 해당 '수단'을 줄곧 이용하여 왔으며, 어느 시점에서 끊기면 술어동작을 끝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挨', '顺', '随', '沿' 개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나타낸다.

(66) 把这几年的经历, 挨着(?挨)次序叙述出来.
최근 몇 년동안 겪었던 일을 순서대로 서술해나가다.
(67) 顺着(?顺)他们的思路推下去.
그들의 사고의 루트를 따라 추리해 나가다.
(68) 随着(?随)人类社会的发展变化而发生相应的变化.
인류사회의 발전 변화를 따라 상응한 변화가 일어난다.
(69) 沿着(?沿)这些线索把分析进行到底.
이러한 실마리를 따라서 끝까지 분석해 나가다.

(66)'挨着次序叙述出来(순서대로 서술해나가다)'는 시간상에서 선후 순서에 따라 한 가지 한 가지 말해나가며, 해당 과정 속에서 임의의 시점의 내용이 다른 시점과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67)-(69)'思路(사고의 루트)', '发展(발전)', '线索(실

마리)'도 어느 포인트에서든지 중단될 수 없고 단번에 이용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술어 동작사건 '推下去', '发生相应的变化', '进行到底'는 '수단'을 따라 추상적인 경로(route)와 선(path)에서의 이동과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목적어가 단음절이고 운율을 맞춰 사자성어를 이루는 경우 외에, 술어동작의 선적인(线性的) '수단' 의미를 나타낼 때는 거의 '挨着', '顺着', '随着', '沿着'를 사용한다.

(70) 挨家挨户去敲门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다
(71) 顺流而下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오다
(72) 随波逐流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다
(73) 沿波讨源　물길을 따라 수원지를 찾다

요컨대, '수단'을 나타내는 '趁, 乘, 借, 靠, 随, 沿, 顺, 挨'는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있으며, '趁着, 乘着, 借着, 靠着, 随着, 沿着, 顺着, 挨着' 개사를 이룬다. '趁, 乘, 借, 靠'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随, 沿, 顺'는 단독형 개사보다 'X着' 형식의 개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은데, 해당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X/X着 상대적 비율	개사	기제
1	X 〉 X着	挨 趁 乘 借 靠	1) 이용한 수단이 순간적인 것도 있고, 지속적인 것도 있다. 2) 술어동작이 반드시 이동이나 단계·정도상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2	X 〈 X着	随 沿 顺	1) 후속 목적어와 결합하여 '(무엇을) 따라서' 의미를 나타내며, 흔히 술어동작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른 경로, 또는 순서를 가리키기에 일정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2) 이용한 '수단'이 선적인(线性的) 특성을 가지므로, 술어동작이 대부분 구체적 또는 추상적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 및 정도상의 변화를 함유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挨'인데, 사실 '挨'는 '随, 沿, 顺'과 같이 '선적인' 경로나 순서를 나타내므로 마땅히 '挨着'의 사용비율이 '挨'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随, 沿, 顺'과 다르게, '挨' 뒤의 목적어는 '个', '家' 등 단음절 단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절적 원인으로 '着'를 부가하기 어렵다. 이외에 목적어가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着'를 부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상위 개사들처럼 수단을 이용하는 동시에 술어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经', '经过', '通过'가 개사로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작(사건)이 완성됨으로 얻은 결과를 전제로 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바탕을 나타낸다.

(74) 直到近来, 经(*经着)许多学者的研究, 才知道孩子的世界与成人截然不同.
최근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비로소 어린이의 세계가 성인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5) 经过(*经过着)你的启发, 我完全明白了.
너의 깨우침을 통해, 내가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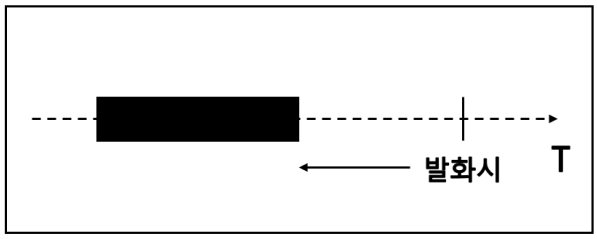
(76) 作者通过(*通过着)细致的分析, 终于发现了千古不传的秘诀.
작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끝내 오랫동안 베일에 싸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시(74-76)에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许多学者的研究)', '너의 깨우침(你的启发)', '세밀한 분석(细致的分析)' 등 동작(사건)이 완성되어 얻은 연구결과나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되고(知道)', '터득하며(明白)', '발견할 수(发现)'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经', '经过', '通过'는 한국어로 '...을 통하여', '...의 끝에' 의미와 유사하며,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없다. 즉 '经着', '经过着', '通过着'로서 술어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나 토대로 할 수 없는데, 이는 '着'의 비완정상-지속상 의미기능으로 말미암아, 앞뒤 절이 시간상에서 모순되기 때문이다.

(75),(76)에서 '经过', '通过'는 뚜렷한 과거 표지인 '-过'를 함유하여, 앞 절 사건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종결되었으며, 해당 결과를 수단으로 술어동작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74)'经' 자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의미를 나타내지만,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许多学者的研究'가 끝난 뒤에야 '知道孩子的世界与成人截然不同'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며, 내재적으로 '-过'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李明晶(2013)에 따르면, '过'는 관점상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일종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며, '过'의 과거시제 기능이 해당 상황을 발화시 이전에서 봉쇄시켜서 시간상의 종점(终点)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동사 자체의 상황에 종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Smith(1991)는 '-过'의 주요특징이 바로 현재 또는 발화시와의 비연속성(discontinuity)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시간적 위치(temporal location)와 상황유형(situation type) 모두가 현재 또는 발화시점까지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서 단절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수단' 의미를 나타낼 경우, '经', '经过', '通过'의 의미기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3-1〉 '经', '经过', '通过'의 의미도식

그림에서 횡축은 시간(T)을 가리키고, 화자가 과거에 발생한 하나의 완정한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해당 경험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종결되어 발화시점까지 연속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발화하는 동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着'와 모순되기에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着'와 달리 완정상(Perfective, 完整体) 표지인 '了$_1$'은 자연스럽게 부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经/经过/通过+NP'와 술어동작은 동일한 시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77) 经了这一番波折，居然有起老成人的样子来了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뜻밖에 노련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78) 文字经过了符号化的改造，在线条化和规范化方面都已具有相当的规模
문자는 부호화의 개혁 끝에, 선화 및 규범화 면에서 모두 상당한 규모를 이루었다.

(79) 通过了几轮考试以后, 他成功进入了他梦寐以求的公司
몇 번의 시험 끝에, 그는 바라던 회사에 입사하는데 성공했다.

'了$_1$'은 완정상 표지로 해당 상황을 하나의 완전한 사건으로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갖는데, '这一番波折', '符号化的改造', '几轮考试'는 후속 동작사건을 진행할 때까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내재적 끝점(endpoint)을 가지며 비연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2.2 근거를 나타내는 겨우

현대중국어에서 후속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 동작사건의 '근거'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로는 '按', '依', '照', '据'가 있는데, 영어 'according to'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 '按', '依', '照'는 '着'를 부가한 '按着', '依着', '照着' 개사가 있으나, '*据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按', '依', '照'에 '着' 부가 상황을 살펴보자.

(80) 按(按着)制度办事.
제도대로 일을 처리하다.
(81) 依(依着)自己的愿望安排计划
자신의 소원대로 계획을 세우다.
(82) 照(照着)这个样子做.
이 모양대로 만들다

(80)-(82)에서 '制度(제도)', '自己的愿望(자신의 소원)', '这个样子(이 모양)'는 모두 술어 동작사건 '办事(일을 처리하다)', '安排计划(계획을 세우다)', '做(만들다)'의 '근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按'-'按着', '依'-'依着', '照'-'照着' 모두 가능하며, 의미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80)를 예로 들면, '按制度办事'는 '제도대로/제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하다'의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고, '按着制度办事'는 명확하지 하진 않지만 '제도에 근거하여 단번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기존 일부 연구는 비슷한 문맥에서 '按', '依', '照' 뒤의 목적어가 단음절 여부에

따라 '着' 부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着'는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없이 접사에 불과하며, '按', '依', '照'와 '按着', '依着', '照着'가 비슷하다고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83) a. 按月交房租
월별로 월세를 내다
b. 按着季节吃水果
계절별로 과일을 먹다

(84) a. 依法惩办
법에 의거하여 징벌하다
b. 依着法律严加惩治
법에 의거하여 엄하게 징벌하다

(85) a. 照章办事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다
b. 照着规章制度办事
규정과 제도대로 행하다

위 예시의 (a.) 항목들과 같이, 개사 뒤의 목적어가 단음절의 경우, 운율적인 원인으로 '着'를 부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다

(83') a. *按着月交房租
(84') a. *依着法惩办
(85') a. *照着章办事

하지만 그렇다고 '按着', '依着', '照着' 속의 '着'는 상적 의미가 없는 접사에 불과하지는 않다. 다음 예문을 보자.

(86) a. 他们按着(?按)一定的路径在沙漠中活动
그들은 일정한 노선대로 사막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b. 我们可以按着(?按)问题去查找
우리는 문제에 근거하여 찾아나가면 된다.

(87) a. 汉唐人能够依着(?依)先秦这个理想逐渐做去, 实在是了不得
한당사람들은 선진시대의 이러한 이상대로 차츰차츰 해나가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b. 我们得尽量的依着(?依)文法去写成完整的句子
우리는 가능한 문법대로 완정한 문장을 써나가야 한다.

(88) a. 照着(?照)实验指导完成一系列操作、最后交份报告
실험지시대로 일련의 조작을 끝내고, 나중에 리포트 한편을 제출한다.

b. 照着(?照)单子一样一样地进行准备
리스트대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한다.

(86)-(88)에서 (a.)항목은 모두 명확한 '선적인'(线性的) 노선 또는 순서를 의미하며, 해당 참조점을 줄곧 근거하여 술어동작을 진행해나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86.a)는 '사막 속에 있는 기존 노선에 근거하여 활동을 펼치는 것'이며, (87.a)는 '선진시대의 이상에 근거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나가'며 정도 상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88.a)는 '실험지시에 근거하여 일련의 조작을 완성해나가고, 마침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b.)항목은 비록 분명한 표현이 없으나,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去查找', '写成完整的句子', '一样一样地进行准备'의 술어동작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조점에 근거하여 실행해나갔음을 보여준다.

(89) 按(*按着)每人两本计算
매 사람당 두 권씩 계산한다.
(90) 依(*依着)我个人的愚见, 温飞卿是很懂得用词藻的
저의 소견에 근거하면, 온비경은 문장을 아주 잘 다룬다.
(91) 照(*照着)他的说法, 这完全是天意呀！
그의 말대로라면, 이는 완전히 하늘의 뜻이지 않는가!

(89)는 '매 사람 두 권'이라는 기준을 근거하여 '계산'한 것이고, (90) '저의 소견'에 근거하여 '온비경은 문장을 아주 잘 다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91)도 마찬가지로, '그의 말'에 근거하여 '이는 완전히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89)'매 사람 두 권'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여, 해당 기준에 계산하는 동작이 상식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에 한동안 지속하였음을 나타내는 '着'가 올 수 없다고 본다. 또한 (90), (91)도 '저의 소견'과 '그의 말'대로 어떠한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견'과 '그의 말'은 후속 발화를 하기 전 어느 시점에서 이미 형성하거나 발생하였으며, 뒷 절 발화내용은 앞 절에서 이미 형성한 견해를 전제로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着'를 부가할 수 없다.

이외에 현대중국어에서 '근거' 의미를 나타내는 '据'는 '*据着'와 같이 '着'를 부가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据'가 동사에서 개

사로 문법화 된 경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说文解字≫에 따르면, "据, 杖持也."로서 본의는 '기대다'이다. 马贝加(2002)에 따르면 '据' 뒤에 지역 또는 장소 명사가 올 경우 본의에서 '차지하다, 점거하다(占据)' 의미로 파생되었다.

(92) 叶公子高入据楚, 诛白公, 定楚国. ≪战国・荀子・强国≫
섭공자 고는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백공을 죽이므로 초나라를 안정시켰다.[13)]

그 후 '차지하다, 점거하다' 의미에서 점차 재분석 및 은유의 기제를 거쳐서 '해당 차지한 사물을 근거로 하여'의 '근거' 의미 개사로 문법화 되었다. 본고에서 CCL 코퍼스를 이용하여 元明清시기 예문들을 살펴 본 결과, 전에는 '据'에 '着'를 부가할 수 있었으며, 함께 '据着'로서 개사를 담당하였다.

(93) 若是据着公道评论, 其实他分散了好些本钱. ≪明・二刻拍案惊奇≫
만약에 정의에 근거하여 평론하자면, 사실 그는 꽤 많은 본전을 분산시켰다.
(94) 看官, 听小子据着传文, 敷演出来. ≪明・二刻拍案惊奇≫
여러분, 소자가 저서의 글대로 서술해내는 것을 들어주시오.
(95) 我们中国的外交官据着条约公法和他抗辩. ≪清・九尾龟≫
우리 중국 외교관들은 조약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와 항변한다.
(96) 到了法堂之上, 侃侃直谈据着公理争辩, 竟被他得了赢官司. ≪清・二十年目睹之怪现状≫
공당에 도착해서 당당하게 말하며 공리에 근거해서 변론하더니, 그가 의외로 승소를 하게 되었다.

(93)은 정의에 근거하여 평론하는 것, (94)은 저서의 글대로 서술해내는 것, (95)은 조약과 법률에 근거하여 항변하는 것, (96)은 공리에 근거하여 변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93-96)에서 '据着'는 앞서 살펴본 '按着', '依着', '照着'와 같이 '무엇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술어동작을 진행하였음을 나타내며, '据着NP'와 술어 'VP'가 동일한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据'의 이러한 용법이 현대에 이르면서 사라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3) 张觉(1995) 참고 및 번역.

(97) 据(*据着)说, 他死在那里!
말하는 바에 근거하면, 그가 거기서 죽었대!
(98) 据(*据着)此书, 可知吃这药是非常麻烦的.
이 책에 근거하면, 이 약을 먹으려면 아주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9) 据(*据着)统计, 近年来学习汉语的人数不断增加.
통계에 근거하면, 최근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100) 据(*据着)我所知, 事情的经过大概是这样的.
내가 아는 바에 근거하면, 사건의 과정이 대략적으로 이러하다.

현대중국어에서 (97)'据说'와 같이 이미 단어를 이루었거나 '据' 뒤에 '此书', '统计', '我所知' 등이 와서 술어 동작사건의 '근거'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앞 절 근거로 하는 내용과 뒷 절의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97)'据说'는 사실 '据某人说'의 간략형태로서, '누군가 말한' 것이 술어 동작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발생하였고, 해당 결과, 즉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그가 거기서 죽었대'라고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98)는 '이 책에 근거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이 약을 먹으려면 아주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9)는 '통계에 근거하면서 최근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가 아니라, '통계를 마치고 해당 통계수치'에 근거하고 나서, '최근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100)은 '나의 그 전의 경험과 알고 있었던 것'에 근거하면, '사건의 과정이 대략적으로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보아, '据'는 후속 명사구와 함께 본래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채택한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와 후행 발화, 판단 등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근거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전자는 소실되고, 후자의 용법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着'를 부가할 수 없는데, 이는 채택한 근거와 술어 동작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3.2.3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후속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 동작사건의 '도구(Instrument)' 의

미를 나타내는 개사로는 대표적으로 '用'이 있다.

(101) 他用(?用着)电脑写信. 그는 컴퓨터로 편지를 쓴다.
(102) 中国人用(?用着)筷子吃饭. 중국인은 젓가락으로 식사한다.

(101), (102)처럼 '用' 뒤에 '电脑', '筷子' 등 사물이 와서 술어 동작사건 '写信', '吃饭'을 실행할 때 채택한 '도구'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 '用着'를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이 자연스럽다.

(103) 他用着(?用)一种不顾一切的口气说完这些话.
그는 일체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투로 이러한 말들을 다 해버렸다.
(104) 连徐义德也在用着(?用)惊诧的目光等待汤阿英的回答.
서의덕마저 의아한 눈길로 탕아영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103) '说完这些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일체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투'로 짧은 시간 내에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다 하기까지 줄곧 일체 상관하지 않는 말투로 하였음'을 보여주며, (104)는 '탕아영이 대답을 하기 전 일정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서의덕은 내내 의아한 눈길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用着' 대신에 '用'을 사용한다면 적절하지 않은데, (103)'说完这些话', (104)'在...等待汤阿英的回答'에서 나타나는 시간 면에서의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장이 어색해진다. 또한 (103), (104)가 (101), (102)와 다른 것은, '用' 뒤의 목적어에 '一种不顾一切的', '惊诧的' 등 수식어가 있으므로,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동작의 '수단'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또 보자.

(105) 用(?用着)英文说话. 영어로 말한다.
(106) 用(?用着)湖北家乡的土话说话. 그는 호북성 고향의 방언으로 말한다.
(107) 他用着湖北家乡的土话说: "... 그는 호북성 고향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105)'英文'에 비해 (106)은 '湖北家乡的土话'와 같이 수식어가 있으나, '用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7)과 같은 문장으로 변형한다면, '用着'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는 시간 면에서 술어 동작이 나타내는 특성과 앞 절에 나타내는 특성이 맞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105),(106)에서는 술어 동작 '说话'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흔히 기존 사실이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서술할 경우 이러한 문장이 사용된다.

(105')他会用英文说话. 그는 영어로 말할 줄 안다.
(106')他经常用湖北家乡的土话说话. 그는 자주 호북성 고향의 방언으로 말한다.

따라서 (106)처럼 '?用着湖北家乡的土话说话.'의 문장이 어색한 것은, 상황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着'와 단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문맥에서 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 (107)'他用着湖北家乡的土话说: "..."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는 '湖北家乡的土话'를 사용하여 '说'의 동작을 진행하는 시간대가 같아서, 즉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현시성(现时性)'을 갖기에 맞는 문장이다.

(108) 他用(*用着)手帕包起书笔, 夹在了腋下.
그는 손수건으로 책과 필들을 싸맨 후, 겨드랑이 아래에 꼈다.
(109) 他看了看屋中, 用(*用着)抹布擦了一把, 然后就出门了.
그는 집안을 들여다보고, 걸레로 한번 닦고서, 바로 집을 나섰다.

(108)의 '包起'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包(싸매다)'의 동작이 순식간에 완성되었으며, 후속 절 '夹在了'의 완정상 표지 '了$_1$'로 봐서 '손수건으로 순식간에 책과 필을 싸맨 후 겨드랑이에 꼈다'는 상황을 하나의 완전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황 내부를 들여다보는 비완정상 '着'가 출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9)도 마찬가지로 '擦了一把'와 '就出门了'에서 '걸레로 한번 닦은' 상황을 외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잇따라 '집을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완정상 '着'가 올 수 없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 '用'은 술어 동작의 '도구' 의미를 중점적으로 나타낸다면, '用着'는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술어 동작을 진행하는 내부상황'을 부각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술어 동작의 '수단' 의미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일정

한 과정을 내포하고, 그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用着' 속의 '着'도 아직 상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듯이, '장소(Locative)'와 '시간(Temporal)'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在', '当', '距', '离'는 모두 공간과 시간적으로 어느 한 지점(地点)과 시점(时点)을 나타낸다. 다른 점이라면, '在'과 '当'은 '(어디에/언제) 존재하고 있다, 위치해 있다'를 의미하고, 영어로 'at', 'in', 'on'에 해당하는데, '距'와 '离'는 기본적으로 목표 지점과 시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다른 한 지점과 시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영어로 '(away) from'에 해당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0) 在学校 / 在1951年
학교에 / 1951년에
(111) 当场 / 当今
즉석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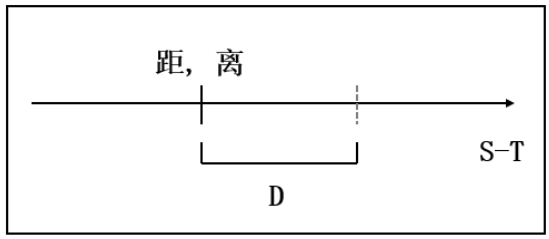
(112) 距北京900公里 / 距今有100年
북경에서 900km /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되었다.
(113) 离北京900公里 / 离中秋节有十天
북경에서 900km / 추석까지 열흘이 남았다.

'在'는 (110)와 같이 '学校'라는 구체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在北京(북경에)', '在韩国(한국에)' 등 지역과 나라를 가리킬 수 있다. (111)'当'은 현대중국어에서 '책임을 맡다(当主席)', '필적하다(实力相当)', '마주보다, 당면하다(当大家面)' 등 여러 의미 항목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 '마침 그 장소, 그 시간에 위치해 있다'의 의미가 바로 본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当场', '当今'은 거의 시간사(时间词)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 및 시간을 나

타내는 '在'와 '当'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3-2〉 '在', '当'의 공간-시간적 의미도식

(112),(113)의 '距'와 '离'는 실제로 목표 지점과 시점을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距'는 '两地相距不远(두 곳은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의미로 동사 때부터 '(어디로부터 얼마) 떨어져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절대적인 상태 사건을 나타낸다. 이와 다르게, '离'는 '分离(떨어지다)', '离开(떠나다)' 등 동작동사로부터 점차 목표 지점과 시점을 나타내는 개사로 되었다. 이는 중국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법화 경로이다. Claude Hagège (2010)는 범언어적 고찰을 통해, 'to get out from', 'to leave'의미 동사가 문법화 하여 'from' 의미 개사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중국어 '离'가 바로 이러한 경로로 현재의 '距'와 같이 '떨어져 있는 목표 장소,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距'와 '离'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3〉 '距', '离'의 공간-시간적 의미도식

<그림3-2>과 <그림3-3>[14]에서 볼 수 있듯이, '在', '当', '距', '离'는 의미면에서

14) <그림3-2>과 <그림3-3>에서 'S-T'는 'Space-Time', 'D'는 'Distance'의 간략 형태이다.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공간-시간에서 하나의 점(point)을 나타내며, 해당 지점과 시점은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술어동작에 의해 변경되거나 이동하지 않고, 절대적인 '정태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술어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着'와 공기할 수 없다.

3.4 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기점을 의미하는 개사로는 '从, 打从, 由, 于, 自, 自从, 自打' 등이 있고, 종점을 나타내는 개사로는 '到'가 있는데, 이들은 공간적인 기점과 종점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기점과 종점을 가리킨다. 다음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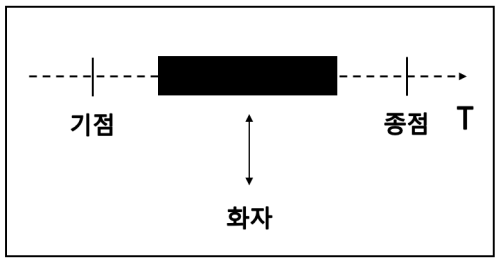
(114) a. 从(*从着)上海到北京. 상하이에서부터 베이징까지.
b. 从(*从着)现在开始, 지금부터...
(115) a. 打从(*打从着)心底里高兴 마음속으로부터 기쁘다
b. 打从(*打从着)她认识他, 내가 그를 알고 나서부터
(116) a. 到(*到着)群众中去. 군중속으로 들어가다.
b. 到(*到着)明天为止一定要解决这件事. 내일까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예시(114-116)과 같이, 기점을 의미하는 단음절 개사 '从'과 '打从', 그리고 종점을 의미하는 '到'를 막론하고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없고, '*从着', '*打从着', '*到着'와 같은 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到'가 '도착하다' 의미의 동사의 '到' 자체의 [+순간성]과 [+한계성] 자질로 인해 '着'를 부가할 수 없다.

(117) 火车到(*到着)站了. 기차가 역에 도착하였다.

다른 한편, '着'의 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완정성'에서 비롯하여, 기점과 종점을 제외한 동작 내부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기점과 종점이 당연히 '着'의 적용범위 밖에 있으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림3-4〉 기점과 종점의 의미도식

3.5 화제와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论'으로 담론하고자 하는 내용, 즉 화제를 표시할 때가 있는데, 영어 'about'에 해당한다. 또한 '범위'를 나타내는 '连'[15], '除'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술어동작이 진행되기 위한 범위를 나타내며, 각각 'include', 'except'에 해당한다.

(118) 论心地，他们都是有点血性的人. 论处境，他们跟我们都差不多一样.
마음씨를 논하자면, 그들은 모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고; 처지를 논하자면,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

(119) 他的侄子们把我们轰出来了，连一床被子都没给我们.
그의 조카가 우리를 쫓아냈는데, 이불 한 채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120) 饭店里，顾客除我们以外，不见有什么人.
식당 안에 우리 외에는 손님이 없었다.

예시 (118)에서처럼 '마음씨'라는 화제에 대해서 논의하므로 '그들은 모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 '처지'라는 범위 안에서 한정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 (119)와 (120)에서 '连'과 '除'는 각각 '포함된 범위'와 '배제된 범위'를 나타낸다. (119)'조카가 우리를 쫓아낼 때' 아무 것도 주지 않은 물품 속에서 '이불'이 포함되었음을 말하고; (120)식당 안에 '우리'라는 범위를 제외해야 손님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15) 吕叔湘(1980)에 따르면, '连'은 개사로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 다른 연관된 사물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 苹果不用削, 连皮吃.
2) 포함시키다. 예: 连皮一共十斤

이처럼 ‘화제’와 ‘범위’는 의미적으로 뚜렷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술어 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관계없이 ‘着’와 양립할 수 없다.

4. 개사의 문법화와 '着'의 부가

4.1 'X着' 개사의 형성과 문법화

4.1.1 'X着' 개사의 형성시기

'X着' 개사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는 'X着' 개사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중국어 'X着' 개사는 'X'가 단독으로 개사를 담당(예컨대 '挨', '按', '朝', '趁', '顺')하는 동시에, '着'를 부가한 'X着' 형식도 개사의 기능을 담당(예컨대 '挨着', '按着', '朝着', '趁着', '顺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 '着'가 상표지로서 동사 혹은 개사에 보편적으로 부가되는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상표지 '着'는 '부착(attach, 附着)' 의미의 동사로부터 문법화하기 시작하였다. 王力(1958)는 부착의미 동사 '著(着)'가 南北朝 시대 이후부터 문법화 되면서 예문(121)과 같이 '前/后/上/下/中'과 대응하여 어떤 장소에 부착된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16)]

(121) 雷公若二升椀, 放著庭中。 ≪三国志・魏志・曹爽传注≫
뇌공(雷公: 천둥 신)은 두 되 정도의 그릇 크기였으며 집 뜰 안에 놓여 있었다.

이후 예문(122)처럼 정태적 의미만 표현하고 행위 진행을 표현하지 못하는 과도기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 예문(123)과 같은 진행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은 元代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시하였다.

(122) 推着黄金无买处. ≪北邙行≫
황금이 쌓여 있어도 살 곳이 없네.

16) 예문 및 번역문은 박정구 외(2019)를 인용한 것이다.

(123) 如战阵厮杀, 擂著鼓, 只是向前去, 有死无二. ≪朱子语类≫
전쟁터에서 전투를 할 때 북을 두드리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전전해 가는 것과 같다.

石毓智(1997)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상표지의 형성은 동보구조 발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魏晋南北朝시기 및 唐朝시기의 '동사+着+목적어'의 구조에서 문법화가 시작되었으며, 元代 초기에 이르러서 정식으로 진행상 표지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124) 见他战笃速惊急列慌慌走着. (陈季卿悟道竹叶舟[元刊])
그는 놀라서 벌벌 떨며 황급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박정구 외(2019)는 王力(1958), 太田辰夫(1957), 蒋绍愚(2006), 石毓智(1997) 등 '着'의 통시적 변천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한 뒤, 元代 초기에 이르러서는 '着'가 이미 동작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상에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으로 문법화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정식으로 상표지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본장은 '着'가 상표지로 문법화 된 시기에 대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X着'의 형성시기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马贝加(2002)는 근대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사들, 예컨대 '于, 自, 从, 在, 把' 등 100여개의 개사들을 망라하여 다루었으며, 매 개사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단음절 개사들은 본래 주요동사로서 술어위치에 있다가, 그 뒤에 다른 한 동사가 옴으로써 'V_1+(N)+V_2+N'의 연동구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의미중심이 뒤로 이동함에 따라 V_1의 실제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어 후속술어를 수식하는 개사로 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대 '沿着, 顺着'와 같은 개사들은 생성시기가 늦으며, 'X'의 동사성이 모두 소실되기 전에 상표지 '着'와 결합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卜雅娜(2011), 周四贵(2010), 刘婷(2014)은 元明・明清 시기별로 개사를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元代와 明代에는 백화문(白话文)의 발전과 구어체 단어의 증가로 인해 새로 형성된 개사들이 많이 출현하였고, 아울러 그전 시대에 사용하던 일부 개사들은 소실되었다고 한다. 일부 개사가 소실됨과 함께 새롭게 형성된 개사도 있는데, 기능면에서 분담이 한층 더 심화되었고, 清代에 이르러서

마찬가지로 일부 개사가 소실되는 동시에 '挨着, 同着, 朝着, 照着, 冲着, 依着, 靠着, 趁着' 등 개사들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雷冬平(2006)은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근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X着' 개사, 예컨대 '按着, 朝着, 趁着, 冲着, 跟着, 对着' 등 29개 개사가 형성한 시기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X着' 개사들이 모두 '着'가 상표지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후에 형성된 것이며, 모두 元明清시기에 출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马贝加(2002) 'X' 개사의 문법화와 형성시기, 그리고 雷冬平(2006)의 'X着' 개사의 형성시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고, 陈昌来(2002), 汉语大词典(1990), CCL코퍼스 '古代汉语'의 元明清시기 말뭉치 자료들을 이용하여 'X' 및 'X着' 개사의 형성시기를 검증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X'			'X着'		
개사	형성시기	예문	개사	형성시기	예문
挨	清代	喜鹊登枝挨边走	挨着	清代	温员外挨着次序道劳
按	汉代	按易卦, 山上有水曰蹇	按着	明代	按着方法, 九浅一深
朝	元代	忽朝担子两头脱	朝着	明代	朝着道长行个礼
趁	宋代	花枝千万趁春开	趁着	元代	俺趁着这月色行动些咱
乘	汉代	汉乘胜逐北	乘着	元代	乘着丈夫上街, 便发话道:
冲	唐代	冲人决起百余丈	冲着	清代	飞快的冲着船首走去
对	汉代	良马知我悲, 延颈对我吟	对着	元代	说与你...休对着别人道
跟	明代	跟我为仇, 不肯借扇	跟着	清代	跟着周望一同起身
和	唐代	所食物余者,便和碗与犬食	和着	明代	终日..., 和着酒肉朋友串哄
借	先秦	吾借王倪以要之	借着	元代	借着势力, 动不动欺打小民
靠	宋代	若只靠政刑去治民	靠着	元代	流落于此, 靠着吹萧度日
顺	南北朝	顺流放火	顺着	元代	顺着蚰蜒小道儿, 我直走...
随	汉代	随例转拜驸马都尉	随着	明代	随着那山路行去
同	唐代	八威先启行, 五老同我游	同着	元代	同着媳妇赴任, 一去杳然
为	先秦	不为尧存, 不为桀亡	为着	元代	为着一时意气, 自刎...首级
向	南北朝	夕云向山合, 水鸟望田飞	向着	明代	一路向着京师来
沿	魏晋	沿江东下	沿着	明代	沿着江岸寻渡
依	魏晋	伦乃依险固筑营壁	依着	元代	依着我的话去做, 包你....
因	先秦	郑灭许, 因楚败也	因着	明代	因着一件事, 复身转去
用	秦汉	齐式用戈击公孟	用着	明代	用着两个哥哥为证
照	宋代	照朝廷数目发下临安府	照着	元代	照着样子打造

〈표4-1〉 'X' 개사와 'X着' 개사의 형성시기

<표4-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음절 'X'형 개사는 대부분 형성시기가 이르며, 元代 이전에 이미 개사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 간혹 늦은 시기에 형성한 개사도 있는데, 예컨대, '朝-元代', '挨-清代', '趁-宋代', '靠-宋代', '照-宋代'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着'가 부가된 형태인 'X着' 개사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데, 이들은 대부분 상표지 '着'가 생성되고 나서 아직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는 'X' 개사와 결합하여 점차 'X着' 개사로 변천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元明清'시기에 발생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 'X着' 개사의 형성에 대해 '개사+상표지'와 '동사+상표지' 가운데서 어느 것으로부터 변천해 온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엇갈린 견해가 종결할 수 없는 원인은, 하나는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품사 범주사이에 달라지는 형태적 특징이 없으며, 개사 또한 동사로부터 서서히 변천해 온 것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바로 동사와 개사로 확연히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표4-1>에서 'X着'는 문장 속에서 확실히 자체의 어휘적 의미를 잃어가고 술어동사를 수식하는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보아 'X着'는 해당 시기부터 개사로서 특유의 범주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시적으로 고찰한 바, 지금까지 'X着'가 'X'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개사를 담당하는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보편화된 시기가 늦은 개사(예컨대 '朝', '挨', '趁', '靠', '照')일지라도, 'X着' 개사는 해당 'X' 개사보다 생성시기가 늦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지 '着'가 정식으로 보편화되고 나서 유독 '元明清'시기에 'X着' 개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현한 것은, 대체적으로 근대에 와서 언어교류와 발전에 따라 다양한 언어 변화가 일어났으며, '元曲', '小说'과 같은 장르가 흥행하면서, 상황의 내부적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X着'의 특성과 부합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X着' 개사는 연동구조에서 은유와 재분석 등 인지적 기제로 인해 첫 번째 동사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어, 후속 술어의 기점, 대상, 방향, 근거, 수단을 나타내는 허사로 되는 과정에, 아직 보존하고 있는 동사성에 의해 '着'가 부가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간주하고자 한다.

4.1.2 개사 범주 내부의 문법화 다양성

'X着' 개사가 元明清시기에 형성된 후로, 그중의 일부는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사용빈도가 낮아졌으나 아직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소실되어 단지 'X' 형식 개사만 남아있으며, 일부는 사용빈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도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기별로 언어자료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경대학교 CCL코퍼스를 이용하여, 'X'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100문장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元明清시기[17]와 현대[18]에서 'X'형식 개사와 'X着' 형식 개사로 사용되는 빈도를 통계하였고, 더 나아가 'X' 개사와 'X着' 개사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문법화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파트	개사	元明清			현대		
		X	X着	X着/X 비율	X	X着	X着/X 비율
1	朝	6	3	50%	17	6	35%
	冲	2	3	150%	18	9	50%
	对	24	8	33%	33	7	21%
	向	74	4	5%	87	3	3%
2	按	17	5	29%	32	4	13%
	依	12	2	17%	18	2	11%
	照	7	3	43%	10	1	10%
3	趁	62	17	27%	80	19	24%
	乘	39	5	13%	4	0	0%
	借	8	4	50%	24	5	21%
	靠	8	10	125%	11	5	45%
	挨	8	1	12%	20	5	25%
	顺	8	11	138%	12	13	108%
	随	3	3	100%	7	12	171%
	沿	17	4	24%	5	8	160%
4	跟	32	8	25%	52	5	10%
	和	39	1	3%	71	0	0%
	同	28	4	14%	16	0	0%
5	为	19	1	5%	18	0	0%
	因	53	0	0%	14	0	0%

17) '元明清시기'는 CCL코퍼스 <古代汉语> 부분의 '元代', '明代', '清代'를 가리키는 것으로, 백화문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의 대표적인 언어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해당 시기를 고찰함으로써, 'X着' 개사들이 생성된 후의 초기 사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18) '현대'는 CCL코퍼스의 <现代汉语> 부분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现代'와 '当代'의 언어자료들을 모두 포함한다. 'X着' 개사들이 생성된 후 지속적인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는데, 해당 자료들을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X着' 개사의 사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比	33	0	0%	62	0	0%
	据	34	0	0%	34	0	0%
	用	12	0	0%	36	0	0%

〈표4-2〉 'X' 개사와 'X着' 개사의 元明清시기 및 현대 사용빈도

<표4-2>·<파트1>의 개사들은 현대중국어에서 주로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들이다. 우선, 元明清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X' 형식과 'X着' 형식의 사용빈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X着'와 'X'의 상대적인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朝, 冲, 对, 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점차 기타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개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고하게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X'에 상대적인 'X着'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은 본래 주요하게 '방향'을 나타내는데서, 개사들이 한층 더 문법화하여 '참여자'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对'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125) a. 杨香五听毕, 对(对着)胜爷说道:
양향오는 듣기를 마치고, 승선생을 향해 말하기를:
b. 对(*对着)他有好感.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개사	유형	의미	元明清	현대	예문
对	a.	방향	96%	64%	杨香五听毕, 对胜爷说道:
	b.	참여자	4%	36%	对他有好感.

元明清시기에 '对'가 개사로 사용될 경우, 총 24개의 용례에서 (125.a)와 같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례가 23개로서 96%를 차지하지만, (125.b)와 같이 동작의 '참여자'를 나타내는 용례는 단 1개로서 4%에 불과하다. 여기서 '방향'을 나타낼 경우, 술어동사가 대부분 '云', '曰', '说', '道' 등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 33개 용례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용례가 21개이며 전체 개사용법의 64%로 감소되었는데, '참여자'를 나타내는 용례는 오히려 36%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对'의 개사빈도가 높

아졌으나, 개사 범주 내부에서는 점차 '방향→참여자'의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을 나타내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따라 'X着'의 비율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파트2>의 '按', '依', '照'는 <파트1>의 개사들과 유사한 점이라면, 'X' 형식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으나 'X'와 상대적인 'X着'의 비율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에 이르면서 개사성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아울러 용법 면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는, 현대에 와서 '按', '依', '照'는 서로 결합하여 '按照', '依照' 등 이음절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들은 단음절 형식과 함께 동작의 '근거'를 나타내는 개사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하다'와 같이 '술어 동작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근거를 참고하였음'을 나타내는 용법이 감소되고, 대신 동작사건을 진행하는 전제로서의 '근거'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해당 근거와 동작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앞서 이미 다루었다. '按'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26) a. 按(按着)制度办事.
제도대로 일을 처리하다.
b. 按(*按着)他的说法, 这完全是天意呀！
그의 말대로라면, 이는 완전히 하늘의 뜻이지 않는가!

개사	유형	의미	元明清	현대	예문
按	a.	근거하여	88%	69%	按制度办事.
	b.	근거하면	12%	31%	按他的说法, 这完全是天意呀!

元明清시기 '按'이 개사로 사용되는 총 17개 용례에서, (126.a)와 같이 '동작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근거를 참고하였음'을 나타내는 용례가 15개로, 88% 차지하는 반면, (126.b)와 같이 '동작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전제로서 참고한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 단 2개로, 12%이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총 32개 개사 용례에서 전자의 비율이 69%로 감소되었으나, 후자의 용법은 31%로 증가하였다.

<파트3>은 주로 동작의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들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개사마다 다양하게 문법화하였다. 우선, 元明清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X着'

의 비율이 감소된 것은 '趁', '乘', '借', '靠'가 있고, 반면 증가한 것은 '挨', '随', '沿'이 있으며, 비록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X' 보다 'X着' 형식이 높은 것은 '顺'이 있다. 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회나 시간을) 이용하여'를 의미하는 '趁'과 '乘'에서 '趁'은 현대중국어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과 다르게, '乘'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127) 晚间趁空儿回老爷说: "　　≪清・儿女英雄传≫
저녁에 틈을 타서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
(128) 乘晋公疑忌之际, 当急上表.　　≪明・三国演义≫
진공이 망설이는 시기를 타서 마땅히 빨리 임금에게 아뢰어야 한다.

(127), (128)처럼 '趁'과 '乘'은 유사한 의미의 개사로 사용되었고, 해당 'X着' 형식도 어느 정도 존재했었으나, '乘'의 개사용법은 점차 감소되면서 'X着' 형식도 거의 소실되고 있다. 현대에서 통계된 '乘'의 4개 용례는 모두 '乘胜追击', '乘虚而入'와 같이 목적어가 단음절이며,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었으므로, '着'를 부가한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顺', '随', '沿'은 현대중국어에서 'X着/X'의 비율이 각각 108%, 171%, 160%로서, 'X着'의 사용빈도가 'X'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서 3.2.1장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顺', '随', '沿'은 술어동작을 진행할 때 채택한 '노선 또는 순서'를 나타내며, 노선과 순서에 따라서 술어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거나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사의 후속 목적어가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着'를 부가하게 된다.

'沿'의 경우 비교적 특이한 것은, 元明清시기에 'X'와 'X着' 형식의 빈도가 각각 17과 4로서, 'X' 형식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한편으로, 元明清시기 '沿'의 후속 목적어가 '途', '路', '山', '江'과 같은 단음절이 대부분이었다(예문129). 다른 한편, '沿途', '沿路', '沿山', '沿江'은 본래 '개사+명사'의 구조에서 내부적으로 융합하여 하나의 이음절 명사를 이루게 되면서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沿' 뒤에 단음절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감소되었다(예문130).

(129) a. 常遇春独领精兵五千, 沿路冲杀. ≪明・英烈传≫
상우춘은 홀로 오천명의 정병을 거느리고 길을 따라 돌격하였다.
(110) b. 中丞遣人沿途打探. ≪清・侠女奇缘≫
중승은 사람을 파견하여 길을 따라 알아보라고 하였다.

(130) a. 沿江一带的兵船, 每天都能看见驶过.
강변 일대의 군함은 매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12) b. 沿途风光秀丽.
오는 길에 경치가 아름답다.

그리고 '挨'는 '顺', '随', '沿'과 같이 동작의 '노선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선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元明清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X着'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元明清시기는 물론 현대에서도 '挨'의 후속 목적어가 단음절의 경우가 대부분인 원인으로 '挨'는 'X' 형식이 'X着' 형식보다 늘 빈도가 더 높은 것이다.

(131) 黄天霸等计共十三人, 一齐挨次入内. ≪清・施公案≫
황천패 등 총 13명은 일제히 순서대로 들어왔다.
(132) 挨着次序排列.
순서대로 배열하다.
(133) 挨家挨户搜查.
집집마다 수색하다.
(134) 乘客们排成一条长队, 挨个出示证件.
승객들은 긴 줄을 서서 순서대로 티켓을 제시하였다.

元明清시기 '挨'가 개사로 사용되는 8개 예문에서 후속 목적어가 모두 '次'로서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의미를 나타낸다(예문131). 현대중국어에서 (132)'次序' 또는 '房间' 등 이음절의 경우에는 '挨着'를 사용하고, (133), (134)'家', '户', '个'처럼 단음절의 경우에는 '着'를 부가할 수 없고 단지 '挨'를 사용한다.

그 다음으로 <파트4> '跟, 和, 同'에서 元明清시기에 '和', '同'이 아주 소량으로 'X着' 형식으로 개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X着' 형식이 모두 사라졌다. 이와 다르게 '跟'은 'X着'의 비율이 50%에서 10%로 감소하였으

나, 현대중국어에서 여전히 'X着'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元明清시기에 출현한 '和着', '同着'는 현대의 '跟着'와 비슷하게, 술어 동작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누구를 따라/누구와 함께하여'로서 일종 술어동작의 '수반' 의미를 나타냈다.

(135) 既然这样, 我和着他们同一路走走. ≪清・小五义≫
그렇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같은 길로 가볼게.
(136) 三人谈了一会, 秋谷便同着小松进城. ≪清・九尾龟≫
세 사람이 한참 얘기하고 나서, 추구는 곧 송이와 함께해서 성에 들어갔다.

이러한 용법의 경우, 술어동작이 거의 모두 '走', '进城', '到'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和', '同'은 '수반'의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한층 더 문법화 된 술어동작의 '참여자'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37) 我和/同他说话.
나는 그와 말하다.
(138) 他和/同书柜一样高.
그의 키가 책장과 같다.

마지막으로 <파트5>는 현대중국어에서 'X着' 형식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드물게 사용되는 개사들이다. 그중 '比'와 '据'는 元明清시기에 소량으로 출현하였으나, 현대중국어에 이르러서는 단 하나의 용례도 찾아볼 수 없다.

X着	元明清		현대	
	출현빈도	총 용례	출현빈도	총 용례
比着	21	7942	0	4301
据着	16	4185	0	1170

元明清시기 '比着', '据着'로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39) 这和尚比着昨日的道士老大不同. ≪明・三宝太监西洋记≫
이 스님은 어제의 스님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
(140) 若是据着公道评论, 其实他分散了好些本钱. ≪明・二刻拍案惊奇≫
만약에 정의에 근거하여 평론하자면, 사실 그는 꽤 많은 본전을 분산시켰다.

이와 다르게, '为着', '因着', '用着'는 元明清시기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어에서도 아직 소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 이들은 주로 현대중국어 구어에서는 드문 반면에, 주로 서면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141) 为着老爷的事, 闹了这一会. ≪明・三宝太监西洋记≫
주인의 일을 위해서 한참동안 소란을 피웠다.
(142) 他不知那里, 因着甚么头由儿, 只拿我煞气. ≪明・金瓶梅≫
그는 어디서 무슨 구실 때문인지 모르게 나만 가지고 화풀이를 했다.
(143) 两个住在赁房中, 且用着卖房的银子度日. ≪明・二刻拍案惊奇≫
두 사람은 세낸 집에서 집을 판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朝着', '借着', '顺着' 등 'X着' 단어의 범주속에서도 통시적으로 일정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CCL코퍼스를 이용하여, 현대중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X着' 개사를 포함한 100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元明清시기와 현대에서의 출현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단어	元明清			현대		
	술어동사와 공기	단독출현	비율[19]	술어동사와 공기	단독출현	비율
朝着	78	21	79%	93	7	93%
冲着	81	18	82%	93	7	93%
对着	80	19	81%	59	13	82%
向着	83	17	83%	88	12	88%
按着	63	36	64%	62	37	63%
依着	53	45	54%	71	26	73%
照着	65	32	67%	60	26	70%
趁着	94	5	95%	100	0	100%

乘着	87	13	87%	99	1	99%
跟着	32	41	44%	46	25	65%
借着	88	12	88%	100	0	100%
靠着	43	57	43%	59	40	60%
挨着	47	52	47%	54	46	54%
顺着	84	10	89%	94	3	97%
随着	56	33	63%	100	0	100%
沿着	38	9	81%	100	0	100%
用着	8	73	10%	21	29	42%

〈표4-3〉 元明清시기와 현대에서 'X着'의 출현상황

<표4-3>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에서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X着'는 근대와 현대에서 모두 기본적으로 다른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X' 고유의 의미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고 본다. Chao(1968)는 대부분 타동사는 소수의 경우에만 연동구조의 첫 번째 동사로 사용되지만, 일부 동사는 높은 빈도로 해당 위치에 출현하므로, 이처럼 출현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동사들이 개사로 된다고 하였다.[20] 문법화 이론에 따르면, 의미가 일반적일수록 문법화하기 쉬우며, 특정한 의미들은 단독으로 술어에 출현하는 경우보다, 다른 더 중요한 동작을 실현하는 매개로 되는 것이 더 편리한 것이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은 元明清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전반적으로 주요동사와의 공기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 '趁着, 借着, 随着, 沿着'는 元明清시기에 술어에 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100% 주요동사와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다.

'X着'의 후속 목적어와 술어동사의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의미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사적 위치의 변화와 함께 상응한 문법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현대중국어에서 주로 '방향'을 나타내는 '朝着', '冲着', '对着', '向着'가 술어동사와 공기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19) 비율: 주요동사와 공기 빈도/(주요동사와 공기 빈도+단독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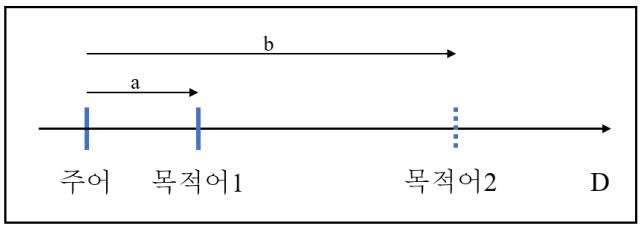
20) "大部分的及物动词偶尔作第一个动词用，但有一些动词经常出现于该位置，这些分布有限的动词成为介词."

단어	유형	元明清	현대	예문	목적어	술어동사
朝着	a.	100%	23%	朝着先生作了几个揖	他 门 众人 西门庆	作揖 说 道 拜 磕头 挥拳 骂
	b.	0%	77%	朝着智能化方向发展	方向 路子 纲领 做法 趋势	发展 迈进 前进 飞来 跑去
冲着	a.	94%	54%	冲着他说了俩字	我们 他 众人 司机	说 打 骂 叫 微笑 看
	b.	6%	31%	冲着流星许愿就会梦想成真	背影 马路 江边 周围 流星	走去 来 许愿
对着	a.	97%	90%	对着众人问道	我 镜子 他们 储蓄员	说 道 摇头 叩头 笑 骂 打拱
	b.	3%	10%	对着电话铃的方向咆哮起来	太阳 晨霞 人潮 方向	走 冲下来 望去
向着	a.	95%	22%	他向着我苦笑	狄公 众人 我 他们	说 道 照 笑 叩头 作揖
	b.	5%	78%	向着文明前进一步	远方 未来 方向 小康 四面八方	飞去 迈进 前进 走来 深化

〈표4-4〉 방향의미 'X着' 개사의 문법화 상황

상위 <표4-4>에서 볼 수 있듯이, '朝着', '冲着', '对着', '向着'의 유형a.는 '先生, 他, 众人'처럼 목적어가 특정한 사람 또는 가시적인 사물이며, 술어동사는 일률적으로 '作揖, 说, 问, 笑, 骂'와 같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이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주어는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동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朝着', '冲着', '对着', '向着'는 '면대하다', '바라보다' 등 본의를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형b.의 경우, 목적어에 '周围', '江边', '晨霞' 등 사물이 오는 것으로 보아, 목적어는 주어와의 거리가 훨씬 멀리 있다. 뿐만 아니라, '方向', '趋势', '未来' 등 확실하게 방향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오고, 술어동사도 '发展', '迈进', '深化', '飞去' 등 추상적인 동작을 나타내는데, 모두 일정한 시간대가 필요한 [+이동] 동사들이다.

유형a.와 유형b.의 비율을 살펴보면, 元明清시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면서 유형a.의 비율은 각각 100%, 94%, 97%, 95%에서 23%, 54%, 90%, 22%로 감소되었고, 동시에 유형b.의 비율은 각각 0%, 6%, 3%, 5%에서 77%, 31%, 10%, 78%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朝着', '冲着', '对着', '向着' 통시적으로 의미적인 면에서 문법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1〉 '朝着', '冲着', '对着', '向着'의 통시적 의미변화 도식

<그림4-1>에서 a는 유형a.가 나타내는 의미에 해당하고, b는 유형b.가 나타내는 의미에 해당하며, D는 공간적인 거리를 가리킨다. 元明清시기의 '朝着', '冲着', '对着', '向着'는 대부분 a와 같이, 목적어가 가시적(可视的) 거리 안에 있는 목적어들을 향하고 있으므로 '면대하다', '바라보다'의 본의를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b와 같이, 가시적 거리를 벗어나서 훨씬 먼 곳에 있는 목적어들을 향하여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朝着', '冲着', '对着', '向着'는 본래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 쪽으로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중국어에서 '근거' 의미를 나타내는 '按着', '依着', '照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단어	유형	元明清	현대	예문	목적어	술어동사
按着	a.	22%	8%	警察按着他的脖子说:“	胸口 肩膀 手	说 笑
	b.	78%	92%	按着我的主意去做	原则 风俗 理论 主意 规矩 思路	照管 做 活动 排 寻 预备
依着	a.	70%	37%	想罢, 依着高墙站下	墙 篝火 河边 水势	站 坐 睡 扎营
	b.	30%	63%	依着地址寻找那黄记陶瓷器铺	教示 法子 本能 意见 指点 规矩	交涉 寻找 传下来 做去 排列
照着	a.	85%	12%	照着薛凤劈面打来	他 镜子 身子 胸膛	打去 练 吹 砍 摔
	b.	15%	88%	照着她的方法做, 感觉确实好很多	条款 特性 命令 话 方法	出发 做 练 造 画

〈표4-5〉 근거의미 'X着' 개사의 문법화 상황

상위 <표4-5>의 유형a.에서, '按着'의 목적어는 '脖子, 胸口, 肩膀' 등이 있고, 술

어동사는 '说, 笑'로서, 여기서 '按着'는 '누르다'의 동작성을 갖는 동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依着'의 목적어와 술어동사는 각각 '高墙, 河边, 水势'와 '站', '坐', '睡'로서, '依着'는 '기대다'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照着'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는 '他, 镜子, 身子'이고 술어동사는 '打去, 练, 摔' 등이 출현하는데, 여기서 '照着'는 하나는 '비추다'의 의미를 갖고, 다른 하나는 '비추면서' 또는 '향하여'의 의미도 갖는다. 다른 한편, 유형b.에서는 유형a.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按着'의 경우, 목적어가 '原则, 主意, 理论, 规矩'이고, 술어동사는 '做, 活动, 排, 寻'으로서, 유형b.의 '按着'는 동작을 실행할 때의 '근거'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依着'는 '教示, 法子, 本能, 指点' 등 목적어와 '交涉, 寻找, 排列' 등 술어동사가 오는데, 이러한 경우 '依着'는 더 이상 '기대다'의 의미가 아니라 '근거하여' 의미로서, 명확하게 동작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照着'의 목적어는 '条款, 特性, 命令, 方法'로서 참고해야 할 사물이며, 술어동사는 '出发, 做, 造'로서, 모두 상응한 근거에 따라야만 실행할 수 있는 동작임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照着'도 마찬가지로 '근거'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형a.와 유형b.의 통시적 비율을 살펴보면, '按着', '依着', '照着'의 유형a.는 각각 22%, 70%, 85%로부터 8%, 37%, 12%로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유형b.의 비율은 각각 78%, 30%, 15%로부터 92%, 63%, 88%로 증가하였다. 이로 보아, '按着', '依着', '照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제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대신 개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다음은 현대중국어에서 주로 '수단' 의미를 나타내는 'X着'의 문법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趁着', '乘着', '跟着', '借着', '靠着', '挨着', '顺着', '随着', '沿着', '用着' 등이 있는데, 우선 '趁着'와 '乘着'를 보자.

단어	유형	元明清	현대	예문	목적어	술어동사
趁着	a.	24%	5%	正趁着顺风行走, 忽地被一阵大风, 直打到岸边去	船 顺风 东风	到 离开 过江 行走
	b.	76%	95%	趁着晚上的空隙, 他把行李搬运回家	时候 之际 节日 空隙 机会 间隙	闹事 送 进程 注视 谋害
乘着	a.	61%	77%	歌声乘着海风吹拂过来	春风 小车 马车 船 降落伞	来 出去 走 飞翔
	b.	39%	23%	老张乘着机会逃之夭夭了	吉日 热闹 机会 夜色	进 逃跑 骗 偷 问 来袭

〈표4-6〉 '趁着', '乘着'의 문법화 상황

우선, '趁着'와 '乘着'는 '탑승하다'의 의미로 고대에서 서로 통하여 사용하였었다. 유형a.에서 '趁着'와 '乘着'의 목적어가 '船, 车, 顺风, 东风' 등 탑승하는 사물들을 나타내고, 술어는 '走, 来, 到, 离开' 등 [+이동]의 동사들로서, '船, 车'와 같이 실체적인 교통수단을 탑승하였거나, 보다 실체적 형태가 없는 '顺风, 东风'을 탑승하여 공간적으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형b.에서는 더 이상 '탑승한 사물'이 아닌 '이용한 시간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어에 '时候, 间隙, 热闹, 机会'의 단어가 오고, 술어에는 '闹事, 谋害, 逃跑, 偷' 등 현저하게 시간이나 틈을 타야 실행할 수 있는 동사들이 온다. 이러한 경우 '趁着'와 '乘着'는 실제적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동작이 '이용한 시간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형b. 비율면에서, '趁着'는 통시적으로 76%에서 95%로 증가하여 현대중국어에서 대부분의 경우 개사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乘着'는 39%에서 23%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의미와 용법을 갖는 '趁着'와의 경쟁속에서 서로 기능을 분담하게 된 결과라고 짐작한다.

단어	유형	元明清	현대	예문	목적어	술어동사
跟着	a.	91%	57%	想要跑又跑不了, 无奈跟着人家前去	人家 他 众人 客人	进 到 去 来 跑
	b.	9%	43%	因父母都在南方, 如今只跟着叔叔过日子	亲戚 先生 大势	读书 过日子 长大 做事
借着	a.	74%	39%	借着灯光看书	酒劲 灯光 这事 月光	看 消遣 出气

	b.	26%	61%	借着这个机会写出一点脑海中对他的印象	精神 机会 名义 掩护 空隙 仪式	运作 找 买 医治 造成
靠着	a.	37%	22%	在月光下, 他靠着一棵杏树睡去了	柱子 肩膀 墙 他 炕枕	站 哭 歇息 道 看 睡
	b.	63%	78%	他靠着卖龙虾, 几年之内挣下很多钱	关系 力量 努力 一时热劲 精神	成为 谱写 拥有 生活 度日
用着	a.	88%	14%	十来岁的孩子, 只怕也还用着我老七相帮	你 剑招 我	相帮 管 探听 做伴儿
	b.	13%	86%	他用着嘲笑的态度问道:“	声音 语气 身份 态度	问 装饰 表现 干 念

〈표4-7〉 '跟着', '借着', '靠着', '用着'의 문법화 상황

다음 '跟着', '借着', '靠着'의 유형a.에서, '跟着'의 목적어는 '人家, 他, 众人'과 같이 사람이 오며, 술어동사는 모두 '进, 到, 去, 跑'와 같이 [+이동]을 가지기에, '跟着'는 '따르다'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통시적으로 91%에서 57%로 감소되었다. 반면, 유형b. 목적어에 '亲戚, 大势' 등 추상적인 사물이 오고, '读书, 过日子, 长大'처럼 [-이동] 동사가 오므로 '跟着'는 공간적인 척도에서 시간적인 척도로 문법화 되었으며, '함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율이 9%에서 4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借着'는 유형a.에서 '灯光, 这事, 酒劲'과 같이 빛, 사건 또는 술기운 등 일반적인 사물이나 힘을 빌어서 '看, 消遣, 出气'의 동작을 실행하였다면, 유형b.에서는 '机会, 空隙, 名义' 등 시간, 명의를 이용하여 후속 술어동작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靠着'는 유형a.에서 '柱子, 肩膀, 墙' 등 목적어와 '站, 哭, 歇息, 睡' 등 술어동사를 통해, 물리적으로 어느 곳에 '기대다'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형b.에서는 '关系, 力量, 努力' 등 목적어와 '成为, 拥有, 生活' 등 술어동사를 통해, 어떠한 관계나 힘을 '의지하여' 후속 동작을 실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借着', '靠着' 모두 통시적으로 유형a.의 비율이 각각 74%, 37%로부터 39%, 22%로 감소되었고, 유형b.는 26%, 61%에서 63%, 78%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用着'도 마찬가지로, 유형a.는 '你, 我' 등 목적어와 '相帮, 管, 做伴儿' 등 술어동사를 통해, 이러한 경우 '필요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元明清시기 88%를 차지하였다. 유형b.는 '态度, 声音, 语气, 身份' 등 목적어와 '问, 装饰, 表现' 등 술어동사를 통해, '...으로'의 의미로 동작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수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b. 의미는 본래 13%에서 86%로 증가하였는데, 현대중국어에서 '用着'는 대부분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挨着', '顺着', '随着', '沿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단어	유형	元明清	현대	예문	목적어	술어동사
挨着	a.	85%	72%	挨着他做/挨着他说道	窗户 墙 肩膀 座位	说 坐 道 问
	b.	15%	28%	挨着次序磕头	次序 盘儿 家门 个儿	磕头 拍门 排列 细听
顺着	a.	68%	34%	顺着大道走	大路 路径 山坡 河沿	走 追 跑 上去
	b.	32%	66%	顺着人物性格, 人物关系的变化循序渐进	情况 来源 思路 目光 味道	延伸 发展 观察 排 说
随着	a.	70%	3%	他也随着众人来到房内	众人 我 将军 大家	进 出 来 到 追
	b.	30%	97%	随着现代化建设的发展, 我国...取得了辉煌的成就.	发展 增强 升高 推进 流失 涌现	取得 关注 减少 得到改善
沿着	a.	84%	39%	你慢慢沿着路走, 一会儿就能听到铃声	马路 江岸 大街 墙 湖	走 回去 划去
	b.	16%	61%	沿着合作的道路向前发展	线索 步骤 发展 道路	探测 产生 发展 搜索 排开

〈표4-8〉 '挨着', '顺着', '随着', '沿着'의 문법화 상황

상위 <표4-8>의 유형a.에서 '挨着'의 목적어는 '窗户, 墙, 肩膀' 등 구체적인 사물이고 술어동사는 '说, 坐, 问'로서, '가까이 하다'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顺着'는 '大路, 路径, 河沿' 등 공간적인 경로를 목적어로 하고 '走, 追, 跑' 등 술어동사는 모두 구체적으로 [+이동]의 동사들이므로, 물론 동작을 진행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척도에 한정되어 있다. '随着'는 목적어가 '众人, 我, 大家' 등 사람을 나타내고, 술어는 '进, 出, 来, 到' 등 모두 [+이동]의 동사들인데, 여기서 '随着'는 공간적으로 '따르다'의 의미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沿着'도 '顺着'와 비슷하게, '马路, 江岸, 大街' 등 목적어와 '走, 回去, 划去' 등 [+이동] 술어동사로 보아서, 대부분 공간적으로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다.

다른 한편, 유형b.에서는 공간적인 측면을 벗어나, 시간이나 정도 등 훨씬 추상화된 측면에서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挨着'의 목적어가 '次序, 家门, 个儿'가 오

고, 술어동사는 '磕头, 拍门, 排列'로서 더 이상 '가까이 하다'가 아닌, 동작이 진행될 때 따른 순서를 나타낸다. '顺着', '随着', '沿着'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情况, 思路, 发展, 增强, 推进, 升高, 线索, 步骤' 등 추상적인 경로를 나타내는 목적어들이 오고, '延伸, 发展, 减少, 探测, 排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도상의 변화를 함유하는 추상적인 술어동사들이 오고 있다.

비율에 있어서, '挨着, 顺着, 随着, 沿着'의 유형a. 의미가 각각 85%, 68%, 70%, 84%에서 통시적으로 72%, 34%, 3%, 39%로 감소되었고, 유형b. 의미는 15%, 32%, 30%, 16%에서 28%, 66%, 97%, 61%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挨着, 顺着, 随着, 沿着'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층 문법화하여 시간 또는 정도 등 측면에서의 경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적 의미가 약화되고 개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2 상표지 '着' 생성이전의 개사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전형적인 개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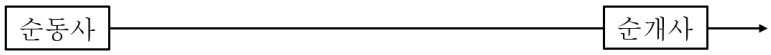
1)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할 수 없다
3) 중첩할 수 없고 '了, 着, 过' 접미사를 붙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형태적 조건은 개사와 동사를 구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컨대, 1)에서 전형적인 동작동사 '走'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전형적인 개사 '把'는 독립적으로 '*把'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없다(예시116). 2) '我想他'의 '想'은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할 수 있는데, '*我把他'는 불가능하다(예시117). 3) '看看', '试试'와 같이 중첩하거나 문맥에 따라 '吃了/着/过饭'을 사용할 수 있으나, '*把着'는 언제든지 사용 불가하다(예시118).

(144) A_1: 你走不走? B_1: 走. A_1: 너 가는가 안 가는가? B_1: 간다.
A_2:*你把不把? B_2: *把.

(145) 我想他. 나는 그가 보고 싶다.
*我把他.
(146) 我吃着饭看书. 나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본다.
*我把着他打了.

해당 세 가지 기준은 동사는 실사로서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나타낼 수 있으며, 매 동작을 실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성]을 갖는 데에 입각하였고 이를 개사와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개사를 완전히 별개의 품사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에서 출발하여 개사로 변천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느리며, 그중 대부분 개사는 아직 순개사로 문법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현대중국어에서 개사 범주 안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개사가 공존하고 있기에 이상 세 가지 기준으로 동사와 개사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은 실로 타당하지 않다.



〈그림4-2〉 동사에서 기원한 개사의 변천 도식

<그림4-2>와 같이 동사 범주와 개사 범주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连续统)이다. 따라서 해당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일부 개사는 술어동사 위치에 출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대중국어 '朝', '照', '靠'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은 각각 후속 목적어와 결합하여 술어동작의 '방향', '근거',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를 담당하고 있다.

(147) 她朝四面看了一下.
그는 사방을 향해 한번 둘러보았다.
(148) 你要是照我的办法做, 对你有利, 不是有害!
너가 만약 나의 방법대로 행한다면, 너에게 유익이 될 뿐 해가 되지 않는다!
(149) 他们家靠这口井, 年年省下好些工夫钱.
그의 집은 이 하나의 우물로 매년마다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하였다.

(147)'朝'는 '사방'이 '한번 둘러보았다' 동작사건의 '방향'인 것을 나타내는 개사이고, (148)'照'는 '나의 방법'이 '행하다'의 '근거'임을 나타내는 개사이며, (149) '靠'는 '이 우물'이 '매년마다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하였다'의 '수단'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체의 어휘적 의미보다 문장에서 술어동작을 수식하는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 동시에 이들은 현대중국어에서 술어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150) 她空虚的目光朝向屋顶.
그의 공허한 눈길이 옥상을 바라보았다.
(151) 一缕阳光照在小东西的脸上.
한 줄기 햇살이 어린애의 얼굴에 비추었다.
(152) 背靠在墙上, 低着头, 不吱声.
등을 벽에 기대고, 고개를 숙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문(150-152)에서 볼 수 있듯이, '朝', '照', '靠'는 각각 '바라보다', '비추다', '기대다'의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장 속에서 술어동사로 출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표2-1>과 같이 학자들이 개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실은 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할 수도 있고 상표지 '着'를 부가하여 '朝着', '照着', '靠着'를 이룰 수도 있다.

이와 다르게, 개사 범주 속의 일부는 확실히 상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부합한다. 즉 1)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2)단독으로 술어를 담당할 수 없으며, 3)중첩할 수 없고 '了, 着, 过' 접미사를 부가할 수 없다. 예컨대 '把, 被, 从, 由, 自'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개사는 이른 시기에 출현한 원인으로 '着'를 부가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는데, 한, 두 마디로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본장에서는 CCL코퍼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개사들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着'를 부가하기 어려우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사의 의미특성에 의해 '着' 부가가 결정된다.

본장에서 '着'는 元代 초기부터 정식으로 상표지로서 승급(晋级)되었다는 石毓智(1997) 등 학자들의 이론 성과와, 현대 'X着'개사들이 元明清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현실을 근거로 하여, '着'를 부가하는데 있어서 개사 문법화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CCL코퍼스 '古代汉语' 부분에 元明清시기 예문 가운데서, 각 개사가 들어간 100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문장 속에서의 사용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按照, 自从, 对于, 为了' 등 이음절 개사는 모두 단음절 개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장에서는 단음절 개사에 한해서 살펴보겠다.

개사	명사	양사	부사	동사	개사	비율[21]	기타
把	4	2	-	2	92	98%	
被	1	-	-	1	97	99%	
从	5	-	-	23	51	69%	从前 从此: 19
将	35	-	16	6	41	87%	
以	-	-	-	2	40	95%	所以 可以 足以 以后 以为: 58
由	15	-	9	14	56	80%	
于	2	-	-	-	82	100%	于是: 16
与	-	-	-	5	75	94%	접속사: 19
自	41	-	23	-	22	100%	自然 亲自: 14
在	4	-	7	13	48	79%	진행상 在: 3, V在: 25
当	2	-	19	34	3	8%	当日 当时 当下 当初: 37, 当然: 4
朝	80	-	-	7	6	46%	朝(zhāo): 5
冲	11	-	-	83	2	2%	
对	23	10	-	35	24	41%	对于: 1
向	2	-	-	10	74	88%	一向 向来: 10
按	7	-	-	66	17	20%	按时 按说: 2 按照: 3
依	9	-	-	55	12	18%	依旧 依然: 22
照	5	-	-	44	7	14%	照常 照例 照旧: 18
据	16	-	-	40	34	46%	据此 据说: 5
趁	-	-	16	5	62	93%	趁早 趁势: 16
乘	-	5	-	51	39	43%	
借	1	-	-	87	8	8%	
靠	-	-	-	79	8	9%	倚靠: 3
跟	15	-	6	38	32	46%	접속사: 1
和	38	-	-	13	39	75%	접속사: 9
同	8	-	26	23	28	55%	접속사: 3, 一同: 8
挨	-	-	-	86	8	9%	挨打: 3
随	2	-	-	71	3	4%	随便 随即 随后: 20
沿	59	-	-	20	17	46%	
顺	32	4	-	39	8	17%	顺手 顺便: 6
为	-	-	-	80	19	19%	
因	10	-	8	1	53	98%	因为: 10, 因此: 18
用	1	-	-	87	12	12%	

除	-	-	-	56	39	41%	扫除 破除 免除: 5
连	1	-	-	53	18	25%	连忙 连夜: 27
论	15	-	-	54	15	22%	议论 谈论: 16
到	-	-	1[22]	58	22	28%	到底 到处: 4, V到, 15
给	-	-	-	49	40	45%	V给: 11
经	33	-	-	27	7	21%	已经 经过: 33
距	4	-	-	57	33	37%	距离: 6
离	2	-	-	68	19	22%	脱离 分离 离开: 11
拿	-	-	-	90	5	5%	捉拿 擒拿: 5
替	-	-	-	89	11	11%	
往	3	-	-	44	28	39%	V往: 4, V or P: 21

〈표4-9〉 元明清시기 개사들의 사용상황

<표4-9>에서 우선, '把(98%), 被(97%), 从(69%), 将(87%), 以(95%), 由(80%), 于(100%), 与(94%), 自(100%), 在(79%)'는 높은 빈도로 개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从'은 동사와 개사 용법 중에서 개사로 사용되는 비율이 69%이지만, '从前', '从此' 와 같이 이음절 단어를 이룬 빈도가 19이며, '将'의 부사용법 빈도가 16으로서, 해당 시기에 '곧 일어나게 된다는' 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与'는 개사에서 한층 더 문법화한 접속사로서의 빈도가 19였다.

(153) 宁国公与荣国公是一母同胞弟兄两个. ≪清・红楼梦≫
녕국공과 영국공 둘은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였다.

이들은 동사에서 문법화가 시작되어 개사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문법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래 동사성을 상실하여 '기점'(从, 由, 自), '처치의 대상'(把, 将), '참여자'(与), '행위자'(被), '도구'(以), '장소'(于, 在) 등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로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元明清시기 'X' 개사에 '着'를 부가하는 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사들이 '着'를 부가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이미 문법화 정도가 높아서 동사로서의 어휘적 의미를 거의 잃어버리고, 순수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비교적 특이한 것은 '向', '趁', '因'이다. '向'은 동사와 개사 용법 가운데서 개사

21) 동사와 개사 용법 중에서 개사로 사용되는 비율.
22) 부사 '倒'와 통하여 쓰였다.

로 사용되는 비율이 88%로서, 문법화 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向'이 개사로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통계상에서 '向'의 비율이 88%이지만,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에 '着'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이다.

(154) 斜着醉眼, 向(向着)秋公道: ≪明・醒世恒言≫
술에 취한 눈을 비스듬하게 뜨고서 추공을 향해 말하기를:
(155) 你们先生要想向(*向着)我要钱, 钱有在这里. ≪清・九尾龟≫
너희 선생님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여기에 있다.

또한 '趁'과 '因'은 각각 93%, 98%로서 마찬가지로 문법화 정도가 높은데, '着'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은, '趁'은 동사로부터 '(시간 또는 기회를) 이용하여' 의미의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로 되었는데, '着'를 부가할 수 있다. 马贝加(2002)에 따르면 '因'은 先秦시기 때 이미 근거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근대중국어에 이르러서는 서면어에서만 제한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156) 因着中书宣卷文, 道: ≪明・英烈传≫
중서선권의 글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跟', '和', '同'은 개사용법 비율이 각각 46%, 75%, 55%로서, 문법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跟', '和', '同'의 개사로 사용되는 예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는 '수반', 즉 동작의 '수단'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나타낸다. 그중 '수반'을 나타낼 경우에는 '着'가 부가되지만, '대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着' 부가가 불가능해진다.

(157) 跟/和/同人家前去. (跟着/和着/同着)
그를 따라/그와 함께 가다.
(158) 跟/和/同他讲话. (*跟着/*和着/*同着)
그와 이야기 하다.

그리고 '朝'(46%), '对'(41%), '据'(46%), '乘'(43%), '沿'(46%), '除'(41%), '给'(45%)

은 비슷하게 개사용법 비율이 40% 이상이지만, '着'를 부가할 수 있는 '朝', '对', '据', '乘', '沿'과 다르게 '除'와 '给'는 현대중국어에서 물론 元明清시기에서도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除'와 '给' 자체의 의미로 비롯되었는데, 이는 '除'(제거하다), '给'(주다)는 동사 때부터 '순간성'을 지니므로 비완정상 '着'의 특성과 모순되므로 처음부터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논의한 바, 개사에 '着' 부가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元明清시기 때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다양한데, 즉 동사로부터 변천하여 개사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 개사범주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着'의 부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사들이 궁극적으로 '着'를 부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문법화 정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이로써 개사의 '着' 부가는 문법화 정도의 영향을 받으나 최종적으로 부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개사가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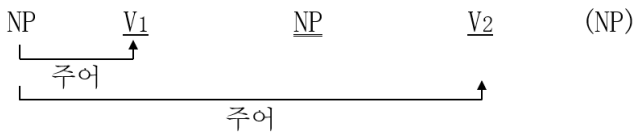
4.3 겸어구문에서 온 개사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현대중국어 개사들은 대부분 연동구조의 통사적 환경에서 문법화하여 온 것인데, Li & Thompson(1981)에 따르면, '(NP) $\underline{V_1}$ (NP)+(NP) $\underline{V_2}$ (NP)'의 연동구조는 아래 네 가지 유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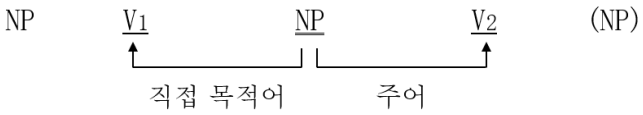
네 가지 의미유형:
1)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사건
   예: 我买票进去
2) 다른 동사의 주어나 직접목적어로 쓰이는 동사구나 절
   예: 他考第一名太好了
3) 겸어구문(Pivotal Construction)
   예: 我们委托他做一件事
4) 서술 구문(Descriptive Construction)
   예: 他有一个妹妹很喜欢看电影

상위 유형 1)과 같이 두 개의 동사구나 절이 병렬되어 출현함으로써 두 개 이상

의 '독립된 동작사건'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흔히 연동구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당 독립된 사건이 모두 하나의 주어가 실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요동사는 술어에 위치한 V_2이다. 현대중국어 '向, 依, 随' 등 개사들은 유형1)연동구문과 같이 동일한 주어를 가지며, V_1과 V_2가 연속으로 일어나는 의미조건 하에서 은유와 재분석을 통해, V_1이 점차 술어 동사의 방향・근거・수단・대상・기점 등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로 되었다. 다른 한편, 상위 유형3)겸어구문은 유형1)연동구문과 다르게 주요 동작사건은 V_1이 나타내며, V_1의 목적어인 NP가 V_2의 주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3〉 연동구문의 의미도식23)



〈그림4-3〉 겸어구문의 의미도식

<그림 4-3>은 연동구문의 의미도식이고, <4-4>는 겸어구문의 의미도식이다. 형식상에서 유형1)과 유형3)은 모두 동사가 나란히 출현하는 연동구조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중국어에서 '叫', '让', '使'는 사동(Causative)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59) 这叫他忽然感到一种喜悦.
이는 그로 하여금 일종 희열을 느끼게 하였다.
(160) 这事让你为难了.
이 일이 너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구나.
(161) 弟弟的纠缠使司机有点束手无策.

23) (NP)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생의 집착이 운전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다.

(159-161)에서 '他', '你', '司机'가 각각 '这', '这事', '弟弟的纠缠'의 영향을 받아서 '感到一种喜悦', '为难', '束手无策'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叫', '让', '使'는 후속 목적어와 술어 동작 사이에 사동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데,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앞서 언급한 유형3) 겸어구문의 V_1에서 문법화하여 개사로 된 것으로 기타 개사들과 다른 문법화 경로를 겪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叫'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162) 凉野寂寞, 寒虫吟叫. ≪六朝・全梁文≫
황량한 들판이 적적하며, 쓸쓸한 벌레가 울며 부르짖는다.
(163) 我儿, 你去叫你哥嫂及早起来, 前后打点. ≪南宋・话本选集≫
나의 아들, 가서 네 형수를 불러서/형수로 하여금 일찍 일어나, 준비하라고 하거라.
(164) 送至厨房之内, 叫厨子清烹, 拿上来你我尝尝.≪清・续济公传≫
주방에 보내어 쉐프로 하여금 살짝 삶게 한 후, 갖고 와서 너와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하렴.

(162)는 '叫'가 주요동사로서 술어위치에 출현하고 있는데, '부르다' 의미의 동작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3)은 '叫'는 연동구조의 V_1 위치에 출현하고 있으며, 후속 목적어 '你哥嫂'와 술어 '及早起来'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叫'는 아직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부르다'의 동사적 의미가 많이 남아있으며 개사로 문법화되는 준비단계에 있다. (164)는 '厨子'와 '清烹'의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여기서 '叫'는 더 이상 '부르다'가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으로 명령 또는 처치의 대상을 나타낸다.

이로 보아, 개사 '向, 依, 随'처럼 연동구문에서 문법화하여 술어동작을 수식하며, 해당 술어동작을 진행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수반되었다는 것과 다르게, 개사 '叫', '让', '使'의 경우는, 술어동작이 오히려 '叫/让/使NP'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시간면에서 '着'의 특성과 모순이 되기에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5. 개사의 구조와 문체에 따른 '着'의 부가

5.1 개사의 구조와 '着'의 부가

2.3.2장 <표2-3>에서 제시하였듯이, 'X着' 개사에서 'X'는 거의 대부분이 단음절이었고, 이음절의 경우는 아주 드물다. 총 22개의 'X着' 개사 중 'X'가 이음절인 것은 '按照, 根据, 依据, 依照' 등 4개인데, 전체 'X着' 개사의 1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증하는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 단어가 대부분이 이음절이며, 이는 안정적인 구조로 더 이상 허사인 '着'가 부가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X'가 이음절의 경우, 해당 내부적 구조로 인해서 '着'가 부가되기에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X'가 이음절의 경우, 내부적 구조에 따른 '着'의 부가 제약을 고찰하고자 한다.

朴正九(1997)의 고증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국어 개사 범주에서 대부분이 단음절이고, 소량으로 이음절 개사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중, 이음절 개사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자면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동사적 형태소와 개사적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합사가 점차 개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 그리고 개사와 개사가 결합하여 함께 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리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1. 동사 + 개사 ⇒ 개사
유형2. 복합사 ⇒ 개사
유형3. 개사 + 개사⇒개사

앞서 본고에서 선정한 총 60개의 연구대상에서 총 12개의 이음절 개사가 있는데, 통시적 고찰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각 개사가 형성된 내부적 구조를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按照 打从 对于 根据 关于 经过 通过
为了 依据 依照 自从 自打

유형			개사
1	동사+개사	⇒ 개사	对于, 关于
2	복합사	⇒ 개사	经过, 通过, 依据, 依照, 按照, 根据
3	개사+개사	⇒ 개사	自从, 自打, 打从, 因为

〈표5-1〉 이음절 개사의 구조유형과 해당 개사

상위 3가지 유형에서 유형1의 '对于'와 '关于'는 각각 '대하다'와 '관계하다'의 동사에 '장소, 대상'을 의미하는 개사 '于'와 결합하여 형성한 것이고; 유형2에서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등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经', '通', '过'가 서로 결합하여 '经过', '通过'를 형성하였으며, 그리고 '의지하다, 따르다'의 '依', '살피다, 순찰하다'의 '按', '차지하다, 기대다'의 '据', '근본으로 하다, 기인하다'의 '根'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의미별로 결합하여 병렬구조의 복합사 '经过', '通过', '依据', '依照', '按照', '根据'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동사의 용법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24] 유형3에서는 '기점, 경유'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개사로 자리매김한 '从', '自', '打'와 '원인, 목적'을 의미하는 '因'과 '为'가 각각 유사한 의미의 개사들이 결합하여 '自从', '自打', '打从', '因为'를 형성하였다.

그중 유형1.'동사+개사⇒개사'와 유형3.'개사+개사⇒개사'의 경우, 모두 '着'를 부가할 수 없으며, 해당 용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65) 这个架构对于(*着)企业的发展非常重要.
이 프레임은 기업의 발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
(166) 关于(*着)我的家乡, 我做了好些梦.
내 고향에 대해서, 나는 많은 꿈을 꾸었다.
(167) 自从(*着)爱子离宫以后, 他日夜不停的悲叹愁苦.
애자가 궁을 떠난 후부터, 그는 주야로 비탄하고 고뇌에 빠졌다.

24) '依, 按, 照, 根, 据'가 '근거'의미 개사로 문법화한 경로 및 기제는 石微(2013)를 참고하였다.

(168) 自打(*着)当了厂长, 他每天都忙得不可开交.
공장장을 맡고 나서부터, 그는 매일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다.
(169) 打从(*着)去年起, 生意开始清淡.
지난해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170) 他因为(*着)这件事受到了处分.
그는 이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이와 같이 '着'를 부가할 수 없는 것은 이음절 개사를 구성한 두 번째 형태소가 이미 문법화 정도가 높은 개사로서 동사성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着'와 공기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다른 한편 이들은 모두 의미적으로 술어 동작사건의 '대상 및 화제'(对于, 关于), 기점(自从, 自打, 打从), 원인(因为)을 나타내는데,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着'와 공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유형2.처럼 실사와 실사가 결합하여 '복합사'를 이루어 점차 개사로 변화된 경우에는 아직 완전한 허사로 되지 않고 문법화 과정의 과도단계에 있으며, 의미적으로 술어 동작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이용한 '근거'의미를 나타내기에 '着'를 부가할 수 있다. 단, 'X'의 음절적 제약으로 이음절의 경우 예문은 소량으로만 존재한다. 여기서 '복합사'에서 기인한 개사들이 아직 문법화 과정의 과도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바로, 현대중국어에서 이들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根据'와 '经过'를 예로 들면,

(171) 财政支出必须根据节约的原则.[25)]
재정지출은 반드시 절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172) 外人直接到江浙去买茶叶, 并不经过广州.
외부 사람들은 직접 강절지역에 가서 찻잎을 구매하는데, 광주를 거치지 않는다.

다음은 CCL과 BCC코퍼스를 이용하여 각각 '着'와 공기하여 문장에서 출현하는 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25) 해당 예문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 '根据' 동사용법의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단어	총 용례[26]	주요술어와 공기	단독 출현	비율[27]
按照着	56	37	15	71%
依照着	39	23	16	59%
依据着	17	9	8	53%
根据着	31	10	10	50%
经过着	22	0	3	0%
通过着	54	0	12	0%

〈표5-2〉 유형2. 개사에 '着' 부가하여 출현하는 상황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음절 개사에 '着'를 부가한 경우는 전반적인 언어자료에서 사용빈도가 아주 적다. 그리고 '依据', '依照', '按照', '根据', '经过', '通过'는 모두 '着'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依据着', '依照着', '按照着', '根据着'는 '依据', '依照', '按照', '根据'와 비슷하게 대부분 다른 주요동사와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经过着'와 '通过着'는 오직 술어위치에만 올 수 밖에 없다.

(173) 她不经心地看着就在眼前经过着的那熟悉的一切.
그녀는 바로 눈앞에서 지나가는 익숙한 모든 것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174) 在她们身边, 嘈杂的人们陆续地通过着.
그녀들의 옆에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줄줄이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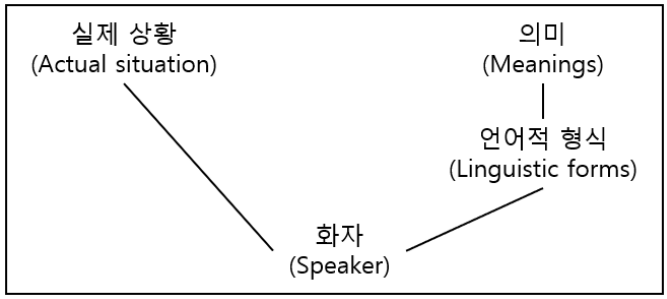
예문(173),(17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经过', '通过'에 '着'가 부가된 것으로 '经过+着'와 '通过+着'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经过'와 '通过'는 이음절의 동사로서 분리할 수 없고 함께 '지나가다, 통과하다'의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상적인 면에서 입각하면, '经过', '通过'가 개사로서 '经过/通过+목적어'를 이루어 주요술어가 실현되는데 필요한 경험이나 근거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着'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의미적인 요소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3.2.1장에서 다루었다.

26) 'X' 개사가 이음절의 경우 '着'를 부가한 용례가 적은고로, 여기서 '총 용례'는 CCL과 BCC코퍼스에서 출현하는 전체 용례를 가리킨다.
27) 여기서 비율은 'X着'를 포함한 전체 용례에서 'X着'가 주요술어와 공기하는 경우의 비율을 가리킨다.

5.2 문체에 따른 '着'의 부가

앞서 개사에 '着'가 부가되는데 있어서 의미적인 것과 문법화, 및 구조적인 요소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개사에 '着'를 부가하여 실제 언어활동에서 사용할 경우 문체에 따라서 나타내는 'X着' 개사의 다양한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Carlota S. Smith(1997)에 따르면, 상황(situation)과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형식(Linguistic forms)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화자(speaker)를 매개로 하여 묘사된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화자가 어떠한 관점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28]



〈그림5-1〉 상황, 화자, 언어적 형식과 의미 사이의 관계

예컨대 다음과 같다.

(175) a. The ship moved　　배는 움직였다.
　　b. The ship was in motion　　배는 움직이고 있었다.

예문에서와 같이 (175a)와 (175b) 모두 '과거에 배가 움직였다'는 실제 상황

28) The speaker links an actual situation to a meaning by talking about the situation with a particular set of linguistic forms, a verb constellation. The relation between situations and sentences is indirect: it is mediated by the speaker. The speaker, not the situation, determines aspectual choice.

(Actual situation)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나 해당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문장을 채택하였다. (175a)는 '배가 움직였다'의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으며, '얼마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175b)는 동일한 상황을 '배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내부가 균질적인 상태 상황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현대중국어에서 'X'와 'X着'가 모두 개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와 문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X'와 다르게 'X着' 개사는 어느 특정한 문체나 화자의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서면어에서와 구어에서 'X着' 개사의 사용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X' 개사를 함께 살펴볼 것이며, 현대중국어 구어와 가장 가까운 BCC코퍼스 '微博' 파트에서 'X' 단어를 포함한 100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출현빈도 및 비율을 통계하고서 기존 통계한 서면어에서의 사용상황을 대조한 도표이다.

개사	文学			微博		
	X	X着	비율[29]	X	X着	비율
朝	32	5	16%	13	0	0%
冲	11	4	36%	2	0	0%
对	26	9	35%	32	0	0%
向	87	6	7%	81	0	0%
按	49	7	14%	15	0	0%
依	11	4	36%	8	0	0%
照	8	2	25%	0	0	0%
挨	8	3	38%	5	0	0%
趁	80	19	24%	93	2	2%
乘	11	2	18%	1	0	0%
跟	58	1	2%	94	0	0%
借	6	2	33%	9	0	0%
靠	11	6	55%	5	0	0%
顺	14	12	86%	0	0	0%
随	7	12	171%	5	4	80%
沿	14	13	93%	8	2	25%
用	43	1	2%	86	0	0%
为	15	0	0%	2	0	0%
因	14	0	0%	85	0	0%
依据	30	0	0%	30	0	0%
依照	85	0	0%	93	0	0%

按照	100	0	0%	100	0	0%
根据	27	0	0%	94	0	0%

〈표5-3〉 서면어와 구어에서 'X'와 'X着' 출현상황

상위 <표5-3>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구어에서는 '경제성' 원칙에 의하여 발화하는 문장이 일반적으로 길지 않으며, 내용면 있어서도 서면어보다 상세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이로 인해 구어에서의 개사는 서면보다 전반적으로 적게 사용되며, 개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훨씬 선택적이다. 술어동작을 실행하는데 이용한 시간이나 기회를 나타내는 '趁, 乘' 사이에서, 비록 서면어와 구어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趁'의 사용빈도가 높았으나,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乘'은 서면어에서의 사용비율이 11%라면,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단지 2%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원인/목적'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 '为'는 서면에서 15% 개사로 'wèi' 발음인 개사로 사용하는 반면, 구어에서는 개사 용법이 2%이며, 'wéi' 발음인 동사로 사용되는 비율이 5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因'은 서면에서 14%가 개사로 사용되고, 그 외에 84%의 경우 모두 '因为'를 사용한 것과 달리, 구어에서는 85%가 '因'을 사용하고 '因为'는 단 1%밖에 안 된다. 이 또한 측면으로 실제 발화행동에서의 경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면어와 구어에 따라 'X'와 'X着' 개사의 사용면에서의 차이인데, 서면어에서는 각 의미별로 'X着' 개사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과 달리, 구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도 거의 'X着'를 사용하지 않고, 형태상에서 더 경제적이고 무표적인 'X' 개사를 채택한다. 예컨대 한 방향을 향해 술어동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서면에서는 '朝着'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지만, 서면에서는 단지 '朝'를 채택한다.

(176) 서면어:
他朝着正南方向拜了几拜, 端端正正坐了下来. ≪中华上下五千年≫
그는 정남방향을 향해 몇 번 절을 하고나서, 바른 자세로 앉았다.

(177) 구어:
最近一直朝一个方向睡, 脸都睡的大边小了.
요즘 자꾸 한 방향을 향해 잤더니, 얼굴이 짝짜기 되었네.

29) 비율: 'X着'의 빈도/'X'의 빈도

사실 예문176)에서 '他朝着正南方向拜了几拜(그는 정남방향을 향해 몇 번 절을 하였다)'의 경우, '朝着' 대신 '朝'를 사용할 수 있으며, 177)에서 '朝'를 '朝着'로 대체 가능하다.

(176') 他朝正南方向拜了几拜, 端端正正坐了下来.
(177') 最近一直朝着一个方向睡, 脸都睡的大边小了.

단 의미면에서의 차이점이라면, 176')는 '그가 몇 번 절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남방향을 향하였음'을 부각하여, 해당 상황(그가 절을 하는 동작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 177')은 '그는 한 방향을 향해 잤'지만 '그 방향을 향해 있는 동안 어떻게, 어떤 동작을 취하며 잤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괄적으로 해당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着'의 배경 역할과 묘사성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동성과 묘사성에 주안점을 두는 소설, 수필 등 문체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X着' 개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구어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인해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며, 하나의 상황 내부를 묘사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잇달아 온 결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다음은 각 의미별로 대표적인 개사들이 서면과 구어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을 비교한 것이다.

X/X着	서면	구어
朝/朝着	黑夜中朝着停泊在英吉利海峡边上的一艘皇家舰艇驶去	我因为自己情绪很差, 朝他发脾气
冲/冲着	回头冲着站在他的背后的李振江笑笑	一个蛮漂亮的女孩忽然冲一个小伙儿大骂
对/对着	一部分伏兵对着牛行车站附近总司令部冲来	最后一次对17岁的你道晚安
向/向着	中国向着加入世贸组织迈出重要一步	35岁的高富帅向12号女嘉宾表白
按/按着	人们可以按着自我的感觉经验, 愿望, 主观意志等等行事.	酒精和水按7：3的比例稀释后装在一个瓶里.
依/依着	他依着他认为"应当"的告诉他们	煲汤时, 依个人口味加盐.

照/照着	照着单子一样一样地进行准备	你应该照他说的做.
挨/挨着	他在后院里挨着屋子寻找	梦见把我的好朋友们挨个揍了一顿
趁/趁着	趁着他们说话的工夫， 爬上了小船	趁夜深人静去楼下便利店
乘/乘着	乘着她在外边瞎忙， 瑞宣把来意简单的告诉了老人	乘他吃奶瓶的时候看了下小嘴巴
跟/跟着	渐渐又跟着夜的清寂， 蜷头曲脚地入睡了	身材跟运动员差不多
借/借着	他们借着夜色掩护, 很快登上城头	借25周年生日回顾一下
靠/靠着	丰田汽车就是靠着比消费者自己更关心消费者的企业文化才成为汽车业中的佼佼者	雅思高分成绩不是靠"突击"来的
顺/顺着	西方这个文化系统， 是顺着希腊, 罗马, 希伯莱这三个来源下来的	顺大道走
随/随着	随着经济的发展， 这种差距越拉越大	让他随"天兔"飞走吧
沿/沿着	社会沿着一定的历史阶段向前发展	沿民丰大街向北走100多米
用/用着	他们都用着疑心极深的眼光，面面相觑	我用PSY的江南Style设置了来电铃音
为/为着	为着宣扬佛法，他请求佛陀准许他出外云游旅行	为他感到惋惜
因/因着	因着生活的紧张忙乱， 在表面上我们是疏远了	刘建伍曾因下水救人，被受救者送过锦旗
依据/依据着	他是依据着科学的方法来推算的	那些闪亮的星座，都是依据过去的传说所命名的
依照/依照着	宇宙背景辐射严格依照着理论预言的频谱非常均匀地分布在整个天空	依照规定，输的人要给赢家颁奖献花
按照/按照着	按照着古兵法上的图式， 每日用心操演人	按照专家提供的瘦身秘诀实践一下
根据/根据着	根据着这个地形条件， 田耕作了兵力布置	根据个人喜好或需要而选择香薰油

〈표5-4〉 서면어와 구어에서 'X'와 'X着' 개사의 예문

우선, '방향' 의미를 나타내는 '朝, 冲, 对, 向'의 경우, 서면에서는 '朝着', '冲着',

'对着', '向着'를 채택하여 해당 방향을 따라서 술어동작 '驶去', '笑笑', '冲来', '迈出一步'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구어에서는 동일한 '방향'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着'를 부가하지 않고 '朝, 冲, 对, 向'을 채택한다. 또한 구어의 특별한 부분은, '朝, 冲, 对, 向'을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朝他发脾气(그에게 화를 내다)', '对你道晚安(너에게 저녁 인사를 하다)', '向女嘉宾表白(여자 게스트에게 고백을 하다)'처럼 술어 동작사건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접수자' 즉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가 더 자주 사용된다.

'근거'를 나타내는 '按, 依, 照'의 사용에 있어서, 서면에서는 '照着单子一样一样地进行准备(리스트에 근거하여 하나하나씩 준비하다)'처럼, '근거' 의미의 '照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준비해나가'는 다양한 단계와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구어에서 '你应该照他说的做(너는 마땅히 그가 말한 내용에 근거하여 행해야 한다)'로 단지 '他说的(그가 말한 내용)'을 근거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둘 뿐 그것을 근거해서 천천히 아니 신속히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관계하지 않는다.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들도, '방향', '근거' 개사의 상황과 유사하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서면에서는 '跟着'로 '(누구/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하다' 의미로 술어동작을 실행하였을 때 수반할 루트를 나타내지만, 구어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없이 '跟他说话(그와 말하다)', '跟运动员差不多(운동선수와 비슷하다' 등 동작/비교의 '대상'의 용법만 존재하는데, 이는 더 문법화된 의미이다.

'用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他们都用着疑心极深的眼光, 面面相觑(그들은 모두 의심이 가득찬 눈길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로 서면에서는 '그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라는 수식적인 표현들을 넣음으로써 '用着'와 그 뒤의 명사구는 함께 술어 동작사건의 수단을 나타내는 의미에 가깝지만, 구어에서는 이러한 묘사가 없이 '我用PSY的江南Style设置了来电铃音(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전화벨로 설정하였다)'처럼 직설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用'과 그 뒤의 목적어는 함께 술어동작 사건을 실행하는데 채택한 '도구'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为着'와 '因着'는 '목적/원인'을 나타낼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모두 소량의 용례만 존재한다.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면에서 간

혹 출현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5-5>와 같이 무작위로 '为'와 '因'을 포함한 100문장을 추출하여 통계하면 '为着'와 '因着'는 모두 0%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CCL, BCC 코퍼스를 통해 살펴본바, 전체 용례에서 '为着'와 '因着'의 출현빈도는 다음 도표와 같다.

개사	서면어			구어		
	빈도	총 용례	비율[30]	빈도	총 용례	비율
为着	1413	14388	0.98%	1037	1784543	0.06%
因着	170	6938	0.25%	410[31]	869405	0.05%

〈표5-5〉 서면어 및 구어에서 '为着', '因着'의 출현빈도

<표5-5>에서 알 수 있듯이, '为着'와 '因着'가 서면에서에의 출현비율은 각각 0.98%, 0.25%이고, 구어에서의 출현비율은 0.06%, 0.05%인데, 상대적으로 '为着'와 '因着'의 사용은 서면어에서만 제한된다. 또한 서면어의 용례 속에서 후속 성분과 문맥을 통해 '为着'의 비율이 '因着'의 4배정도 많은데, '为着'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 의미에서 '着' 부가가 가능하며, '因着'는 '依着'와 유사하게 '(무엇을) 따라서' 의미를 갖는 경우에 '着'를 부가한 경우가 많다.

(178) 退化是因着环境的变异而逐渐丧失.
퇴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서면에서는 개사 뒤 목적어의 길이, 즉 음절수가 많은 것과 달리 구어에서는 목적어가 비교적 짧다. 서면에서는 '방향' 의미의 개사 뒤에 '自由化、国际化、制度化方向', '贴近群众、贴近现实、贴近生活"的方向'처럼 구가 올 수 있으나, 구어에서는 '他', 사람의 이름 등 단순한 단어만 온다. '근거'와 '수단'도 마찬가지로, 서면에서는 '自我的感觉经验、愿望、主观意志', '用最小努力取得最大成果的原则' 등 복잡한 구가 온다면, 구어에서는 '不同额度', '7 : 3的比例'와 같이

30) 비율: 빈도/총 용례
31) 실제로 BCC 코퍼스 '微博' 파트에서, '因着'를 검색하면 410회 출현하지만, 똑같은 문장이 5회 이상 중복된 경우가 절반가량 되므로, 구어에서 '因着'의 출현비율이 0.05%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

단순 구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X着' 개사 뒤에 목적어의 음절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한 면으로 하나의 상황을 단순 서술하는데서 더욱 상세하고 생동하게 묘사하는 데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수필・소설 등 서면에서 'X着' 뒤의 목적어 음절수가 보편적으로 많은 현상은, 서면어는 구체성과 묘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旁证)이기도 하다.

张美霞(2015)에 의하면, 동일한 개사일지라도 문체에 따라서 출현하는 위치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르며, 한 개사의 여러 의미유형 중 어느 특정한 의미의 사용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설, 수필 등 서면의 경우 생동성과 표현력을 구비해야 하기에, 동일한 상황이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묘사하려고 한다. 서면어는 구어에 비해 개사 뒤의 목적어나 문장 전체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데, 이 또한 '묘사성'을 강조하는 서면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술어동작의 동일한 '방향', '근거', '수단', '목적/원인'을 나타내는 상황일지라도, 해당 '시간성'까지 함께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어는 구어에 비해 보수적이며, 개사는 동사로부터 문법화한 품사로서, 서면에서는 해당 단어 고유의 속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春暖花开(봄이 따뜻하고 꽃이 핀다), 张灯结彩(초롱을 달고 오색천으로 장식하다)와 같은 사자성어는 봄기운이 가득한 상황을 묘사할 때, 그리고 벅적벅적하고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묘사하는 서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면, 구어에서 이러한 표현을 거의 볼 수 없거나 의미가 비슷하지만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春天来了', '今年节日好热闹啊'이다.

이와 다르게, 구어에서는 언어표현의 경제성 원칙에 의해 상황 내적인 면을 자세히 다루기보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며, 화자에 의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간혹 'X着'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跟着', '为着', '因着' 등 서면과 구어에서의 출현상황을 보아 서면어는 문법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반면, 구어에서는 문법화 정도가 높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서면/구어	문체	기제
서면어	소설, 수필, 뉴스	1) 생동성, 표현성 2) 목적어[32] 음절수
구어	微博	경제성

〈표5-6〉 문체에 따른 'X着' 사용의 기제

6. 결 론

본고는 현대중국어 개사의 상표지 '着' 부가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대중국어 개사는 동사에서부터 문법화 해온 것으로, 개사 범주 내에 아직 상당히 많은 개사들이 순동사에서 순개사로 과도하는 연속체(连续统) 속에 머물러 있다. 현재 개사에 '着'를 부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X着' 개사속의 '着'는 아직 상대적 시간성을 지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에 '着'가 부가된 형태인 'V着'와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둘째, 개사에 '着'를 부가할 경우, 우선 의미적인 면에서 개사와 '着'가 맞물려야 결합할 수 있는데, [-한계성], [-순간성] 등 특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방향', '수단', '근거' 의미 개사와 같이, 술어동작이 진행되는데 일정한 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수반하였음을 나타내는 개사에는 '着'를 부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X' 개사를 사용한다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되는데, 이로 보아 'X着' 개사만의 문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장소', '시간', '기점', '종점', '범위', '대상',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을 반영할 수 없고, 다만 사건이 진행되는 내부 과정의 상황만을 나타내는 '着'의 비완정상과 모순되므로 '着'와 공기할 수 없다.

셋째,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着'를 부가할 수 있는 여부의 다른 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从', '与', '以' 등 개사는 '着'가 정식으로 상표지로서 보편화하여 사용되기 전에 이미 문법화 정도가 높으므로, '着'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시적인 통계 및 의미분석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개사의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着' 부가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着'의 부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당 개사가 나타내는 의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개사 뒤에 '着'가 부가된 'X着'가 현대에 이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비율이 낮아졌으나, 술어동작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채택하는 구체적 및 추상적인

32) 여기서 '목적어'는 개사의 피지배항인 목적어를 가리키며, 'X着NP+VP'에서 'NP'에 해당한다.

노선이나 순서를 의미하는 '顺着', '随着', '沿着'는 오히려 '顺', '随', '沿' 보다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는 'X着' 개사 내부의 '着'는 의미 없는 접미사가 아닌 비완정상의 의미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표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한다.

마지막으로, 'X着' 개사에서 'X'가 단음절을 더 선호하며, 이음절의 경우 'X'의 구성방식에 따라 '着'의 부가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즉, 'X'가 이음절의 경우, 두 번째 음절에 문법화 정도가 높은 개사로 구성될 때에 '着'를 부가할 수 없는 반면, 복합사에서 기원한 개사는 '着' 부가가 가능하다. 그 원인은 의미적으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술어동작을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법화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아직 술어를 담당하고 있는 용법이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着'는 주요사건의 시간적・위치적 배경이 되는 기능에 입각하여, 'X着' 개사는 생동성과 묘사성을 강조하는 시가, 산문, 소설 등 서면어에서 보다 많이 사용되고, 반면에 경제성을 요구하는 구어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서술할 때에도 'X' 형 개사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한편, '为着', '因着'가 구어에서 거의 출현하지 않는데 비해, 서면어에서 종종 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서면어의 묘사성 외에도, 서면어는 구어보다 보수적이며 해당 단어의 고유 속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특성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현대중국어 'X着' 개사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중국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류

1.1 국문 논문

김종도(1996), <상 의미의 이중성 연구>, ≪담화와 인지≫ 제3권, 101-129.

류 위(2006), <現代 中國語 介詞 '朝, 向, 往'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덕준(1998), <현대중국어 종점표시 개사 연구 - 朝 到 往 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신순(2019), <현대중국어 '在', '着', '正'의 상적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정구・마문나(2007), <현대중국어 V{往/向} 구조의 결합조건과 어법특성>, ≪중국어언연구≫ 第26辑, 165-185.

박정구 외(2019),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방언의 결과상/진행상 표지의 변이 유형과 발전 기제-동사의 후행하는 '着'류와 '在'류 형식을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학회≫ 第75辑, 87-114.

유성은(2006), <중국어 상표지 '着'字 再考>, ≪중국어문학논집≫ 40호, 63-82.

최재영・권선아(2014), <복합전치사 '為了/為著' 연구 - 明清시기와 現代시기의 작품분석을 기반으로>, ≪중국문화연구≫ 제25집, 99-113.

1.2 중문 논문

陈前瑞(2003), <汉语体貌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陈 迪(2013), <宋代新兴介词研究>,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储泽祥(2004), <"对着"的虚化过程及其语法地位>, ≪语言学论丛≫ 第29辑, 278-290.

戴耀晶(1991), <现代汉语表示持续体的着的语义分析>, ≪语言教学与研究≫ 第二期, 92-106.

丁茂琴(2015), <"X着"类介词的词汇化与语法化>,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方 梅(2000), <从"V着"看汉语不完全体的功能特征>, ≪语法研究和探索≫ 第九期, 38-55.

房玉清(1992), <动态助词“了”“着”“过”的语义特征及其用法比较>, ≪汉语学习≫ 第1期, 14-20.

高亚男(2009), <现代汉语“X了”类词语的词汇化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雷冬平(2006), <近代汉语常用双音虚词演变研究及认知分析>,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李讷・石毓智(1997), <论汉语体标记诞生的机制>, ≪中国语文≫ 第2期, 183-201.

刘宁生(1985), <论″着″及其相关的两个动态范畴>, ≪语文研究≫ 第二期, 117-128.

刘 婷(2014), <元明时期新兴介词研究>, 华中科技大学 硕士学位论文.

陆俭明(1999), <“着”字补议>, ≪中国语文≫ 第5期, 331-335.

孟晓慧(2010), <“X+着”类介词的形成过程及内部差异探析>, ≪岱宗学刊≫ 第14卷・第3期, 5-9.

彭 飞(2012), <汉语常用介词的认知和功能研究>, 南开大学 博士学位论文.

朴正九(1997), <漢語介詞研究>, 國立清華大學 博士學位論文.

卜雅娜(2011), <明清以来汉语介词的演变研究>, 南京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钱乃荣(2000), <体助词“着”不表示“进行”意义>, ≪汉语学习≫ 第4期, 1-6.

尚 平(2005), <“介词+着”现象考察>, ≪语言文字应用≫ 第9期, 147-149.

沈家煊(1993), <句法的相似性问题>, ≪外语教学与研究≫ 第1期, 2-8.

石 微(2013), <汉语依据类介词的语法化研究>,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石毓智(1992), <论现代汉语的体范畴>, ≪中国社会科学≫ 第6期, 183-201.

_____(1995), <时间的一维性对介词衍生的影响>, ≪中国语文≫ 第1期, 1-10.

孙颖颖(2013), <从“本着”看由“着”参构的介词的语法化和词汇化>, ≪语文学刊≫ 第24期, 16-33.

吴福祥(2014), <语义图与语法化>, ≪世界汉语教学≫ 第28卷, 3-17.

姚 幸(2013), <“接着”和“跟着”的语法化研究>,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张成进(2013), <现代汉语双音介词的词汇化与语法化研究>, 安徽大学 博士学位论文.

_____(2015), <介词“除了”的词汇化及其动因>, ≪四川师范大学学报≫ 第3期, 100-105.

张美霞(2015), <方向介词″对着″的演变过程与形成机制>,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88-95.

周四贵(2010), <元明汉语介词研究>, 苏州大学 博士学位论文.

1.3 영어 논문

Ashwini, Deo (2012), 'Morph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155-183, Oxford University Press.

Hana, Filip (2012), 'Lexical Aspect', In: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721-751, Oxford University Press.

Hopper, Paul J. (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Discourse and Syntax*, 213-241, Academic Press.

Lindstedt, Jouko (2001), 'Tense and aspect'. In: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 1, 768-783, Walter de Gruyter.

Liu, Meichun (2015), 'Tense And Aspect in Mandarin Chine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hinese Linguistics*, 274-289, Oxford University Press.

Wallace, Stephen (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201-223, Benjamins Pub.

Nicolle, Steve (2012), 'Diachrony And Grammaticaliz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1-28, Oxford University Press.

2. 단행본

2.1 국문 단행본

고석주 옮김(1998), ≪격≫, 한신문화사. Barry J. Blake(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일 외 옮김(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주식 옮김(2006), ≪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 Tania Kuteva (2001), *Auxiliation: An Enquiry into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박원기(2012), ≪중국어와 문법화: 현대중국어의 탄생≫, 學古房.

윤병달(2009), ≪언어와 의미: 문법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 도서출판 동인.

이상철 역(2004), ≪최신의미론≫, 한국문화사. John I. Saeed (1997), *Semantics* (Secon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Led.

이성하(2006),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조경환(2015), ≪중국어의 상: 안과 밖≫, 역락.
허성도(2014),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2.2 중문 단행본

陈昌来(2002), ≪介词与介引功能≫, 安徽教育出版社.
戴耀晶(1997), ≪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 浙江教育出版社.
丁邦新 译(2002), ≪中国话的文法≫, 中文大学出版社. YuenRen Chao (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房玉清(1992), ≪实用汉语语法≫, 北京语言学院出版社.
高明凯(1948), ≪汉语语法论≫, 商务印书馆.
龚千炎(1995), ≪汉语的时相时制时态≫, 商务印书馆.
郭 锐(2002), ≪现代汉语词类研究≫, 商务印书馆.
金昌吉(1996),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南开大学出版社.
黎锦熙(1957), ≪新著国语文法≫, 商务印书馆.
李明晶(2013), ≪现代汉语体貌系统的二元分析≫, 北京大学出版社.
李晓琪(2005), ≪现代汉语虚词讲义≫, 北京大学出版社.
刘丹青(2003), ≪语序类型学与介词理论≫, 商务印书馆.
刘月华 等(2004),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吕叔湘(1980),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马贝加(2002), ≪近代汉语介词≫, 中华书局.
王 力(1945[1984]), ≪中国语法理论≫, 山东教育出版社.
张 斌(2000), ≪现代汉语虚词≫, 华东师范大学出版社.
张 觉(1995), 荀子译注, 上海古籍出版社.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2.3 영문 단행본

Comrie, Bernard (1976),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gège, Claude (2010), *Adposi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Haiman, John (1985), *Natural Syntax: Iconicity and Ero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it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mith, Carlota S.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ress.

3. 공구서 및 인터넷 자료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语料库, http://ccl.pku.edu.cn/corpus.asp

北语BCC汉语语料库, http://bcc.blcu.edu.cn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2016),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中文摘要】

现代汉语“介词＋着”现象研究

国立首尔大学 中文系

闫静洁

现代汉语介词范畴内有不加体标记的典型介词, 如: ‘把’, ‘从’; 但另一方面, 同时也存在含有‘着’的‘X着’类介词, 如: ‘朝着’, ‘顺着’。据本文研究, ‘X着’介词内的‘着’具有指示相对时间的功能, 并且在介词上加体标记‘着’的过程中遵从着一定的机制。因此, 本文重点考察了在介词上附加‘着’的现象, 分析了其中引起影响的几类因素, 还有‘X着’介词在实际语用环境中, 会因文体的不同而表现出不一样的情况。

在语义方面, 介词与后置宾语结合分别表示谓语的‘方向’, ‘方式’, ‘依据’的情况下可以加上‘着’, 然而, 当表示谓语的‘起点’, ‘终点’, ‘场所’, ‘时间’, ‘对象’, ‘话题’, ‘范围’等意义时, 则无法附加‘着’。若想与‘着’共现首先要在语义上两者相符, 即‘着’具有【-瞬时性】, 并且作为非完整体标记, 它只关注情状的内部结构, 并不涉及起点和终点。因此, 只有表示谓语动词在进行时的内部结构的介词才能与‘着’共现, 这类介词就是表示谓语动词在进行中持续采用的‘方向’, ‘方式’和‘依据’的介词。

另外, 介词的语法化程度也是影响能否附加‘着’的重要因素之一。普遍认为‘从’, ‘与’, ‘以’等介词是因为‘着’在成为体标记之前就已经成为语法化程度很高的介词, 所以无法加‘着’。不过, 本文通过历时现象的统计以及语义分析后发现, 虽然随着介词语法化程度的提高‘着’的附加也变得越来越难, 但是最终决定能否加‘着’是由介词所代表的语义决定的。

目前为止, 所有对‘X着’类介词的研究中均忽略了当‘X’是双音节的情况。首先,我们不得不承认双音节介词加体标记的例子很少, 而且在本文中所分的三个类型中, 只有当复合词变为介词的情况下才可以加‘着’。一方面, 因为在语义上介词所表示的依据义还可以持续伴随谓语; 另一方面, 这些介词语法化程度还不是很高, 这一点可以从

它们仍然作为动词出现在谓语的表现中得知。而其中‘经过’和‘通过’因为在语义上与‘着’相矛盾, 所以无法加‘着’。

最后, 介词加‘着’以后形成的‘X着’介词, 在具体语用环境中, 会根据文体的不同而表现出不一样的使用情况。一般情况下, 书面文体更注重描写性, 不仅如此, 相对于口语而言, 在语法的运用上书面语更加保守一些, 具有保存一个单词原有词性的传统力量, 所以‘X着’的使用频率会比较高; 而在口语中, 根据语言的经济性原则, 会更倾向于使用更为简洁和无标记的‘X’介词。

本文在论述的过程中, 以语义分析和语料库统计为基本手段。根据Comrie(1976), Smith(1997), 陈前瑞(2003), 朴正九(2019)的体貌相关理论, 加上Hagège(2010), 刘丹青(2003)的介词理论, 还有Hopper &Traugott(1993)的语法化理论, 从而对‘介词+着’的现象进行了多方面的分析和解释。

以上论述, 希望有助于近年来备受瞩目的‘X着’类介词有一个更加清楚的认识, 还有在对外汉语教学当中得到广泛的应用。

关键词: 介词, 体标记‘着’, ‘X着’类介词, 语义功能, 语法化, 介词结构, 文体制约
学　号: 2017-29574